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혜 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하회별신굿탈놀이 교육 방안 연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9학년 과정을  
중심으로-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유 정 현

하회별신굿탈놀이 교육 방안 연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9학년 과정을  
중심으로-

강 혜 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유 정 현



## 논문개요

본고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하회별신굿탈놀이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발행된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화법 영역에 배치하여 해학에 초점을 맞춰 배우도록 되어 있다.

2007년 교육과정에 따라 발행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어 교과서를 조사해 본 결과 교과서의 종류가 늘어나고 다양해진 것에 비해 가면극이 교과서에 수록된 분량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학교에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주로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주로 봉산탈춤을 배우므로 가면극 교육에 있어 편중이 심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가면극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국어 교과서에서 가면극이 좀 더 다양하게 수록되어야 하며 중학교 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가면극이 화법 영역에만 배치되어 있지만 문학 영역에서도 배치될 필요성이 있다.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통해서 교수·학습 될 수 있는 것은 해학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다.

본고는 하회별신굿탈놀이에 담긴 공동체 문화에 주목하여 그에 따른 지도안을 구성해 보았다. 또한 반응 중심 학습 모형에 따른 지도안에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모둠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를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과 방법	1
2. 선행 연구 검토	3
II. 하회별신굿탈놀이의 교육 양상과 교육적 의의	8
1. 하회별신굿탈놀이 특성과 교육적 의의	8
1) 가면극의 특성과 하회별신굿탈놀이	8
2) 해학과 재담으로서의 의의	26
3) 전통문화로서의 의의	32
2. 가면극의 교과서 수록 양상과 하회별신굿탈놀이의 교육 양상	39
1) 가면극의 교과서 수록 양상	39
2) 하회별신굿탈놀이의 교육 양상	43
III. 하회별신굿탈놀이의 교수 학습 방안	53
1. 직접 교수법에 따른 하회별신굿탈놀이 교수·학습 지도안	53
2. 반응 중심 학습 모형에 따른 하회별신굿탈놀이 교수·학습 지도안	59
IV. 결론	64

참 고 문 헌

ABSTRACT(영문초록)

부록

## I. 서론

### 1. 연구 목적과 방법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간된 중학교 교과서는 총 50종에 달한다.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 국어교과서 1·2학기를 조사한 결과 중학교 1학년 23종 교과서 중에서는 세 곳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수록해 놓았고, 중학교 2학년 15종 교과서에서는 한 곳에서 양주별산대놀이를 수록해 놓았으며 두 곳에서는 내용 없이 봉산탈춤에 등장하는 양반탈과 하회별신굿탈놀이에 등장하는 하회탈 사지만 본문에 수록해 놓았다. 중학교 3학년 12종 교과서 중에서는 네 곳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가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교과서의 종류가 대폭 늘어나고 다양해진 것에 비하면 가면극의 분량은 여전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학년~9학년은 주로 하회별신굿탈놀이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배우도록 되어 있으며 10학년에 가서는 주로 봉산탈춤이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배우도록 되어 있다. 봉산탈춤이 황해도 지방에서 전승되는 도시가면극으로서 각 과장마다 여러 인물이 등장하여 흥취로운 춤과 해학적인 대사로 엮여져 있다면<sup>1)</sup>, 하회별신굿탈놀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농촌가면극으로, 오광대나, 산대놀이, 해서탈춤 등의 도시가면극에 비해 공연방식이나 내용이 원초적이고 소박한 편이다.<sup>2)</sup> 국어 교과에서는 저학년인 중학교 단계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먼저 학습한 후, 고학년인 고등학교 단계에 가서 봉산탈춤을 배우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에서는 가

---

1) 위의 책 555쪽.

2) 서대석 편, 『구비문학』, 해냄, 1997, 541쪽

면극이 듣기·말하기인 화법영역에 배치되어 ‘해학과 재담’으로서의 가면극을 학습하게 되어 있으며, 중학교 2학년에서는 가면극을 읽기 영역에 배치하여 가면극을 풍자물로서 배우도록 되어 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공통적으로 가면극을 해학성과 풍자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화법영역에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의 해학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총체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0학년에 가서야 공연예술 차원에서 가면극을 배우게 되어 어느 정도 확장된 시야에서 가면극을 접할 수 있게 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될 것이다. 가면극의 특성과 더불어 하회별신굿탈놀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본 다음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해학과 재담으로서의 의의 차원에서 언급하고 나서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전통문화로서의 의의 차원에서 조명해 나갈 것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7학년~10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가면극의 수록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가면극 교육의 현황을 짚어보고 중학교 1-1(박영목 외, 천재교육), 중학교 3-1(노미숙 외, 천재교육), 중학교 3-2(오세영 외, 해냄에듀), 중학교 3-2(조동길 외, 비상교육), 중학교 3-2(윤여탁 외, (주)미래엔), 고등학교 국어(상)((주)지학사, 방민호 외) 총 6개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에서의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주로 해학과 재담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전통문화로서의 의의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제기할 것이다. 중학교 1-2(권영민 외, 새롭교육)은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교과서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중학교 1-2(송하춘 외)와 중학교 1-2((주)박영사)도 중학교 1-1(박영목, 천재교육)에 비해 학습 활동이 미비해 제외하였다. 본고는 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년별로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한 중학교 1-1(박영목 외, 천재교육)만 선택하고 나머지 두 교과서는 교과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전통문화로서의 의의 차원에서 지도할 경우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 현시적으로 직접 교수법에 따른 교수·학습 지도안과 반응 중심 학습 모형에 따른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되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7~9학년 국어 교과서들은 가면극이라는 용어 말고도 탈놀이, 탈춤, 가면극, 민속극, 전통극이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통 극예술을 분류해 보면 전통극은 민속극과 궁정극을 포함한 개념이며 가면극은 탈놀이·탈춤 그리고 인형극을 포함한 개념이다. 현 교과서들은 탈놀이나 탈춤을 가면극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다. 용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면극의 특성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 교과서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가면극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본고의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 2. 선행 연구 검토

김영찬(2001)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민속극 교육의 실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기의 민속극 교육은 체재 수용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 것으로 보아 민속극 교육의 양상은 양적으로 점진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고 질적으로도 수록 양상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5차 교육과정기 이래 계속 봉산탈춤이 수록되고 있는데 봉산탈춤이 민속극을 대표할만한 작품이고 민속극의 의의가 충분히 갖추어졌더라도 학생들에게 민속극을 획일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교과서에 수록될 민속극 작품은 작품의 다양성과 함께 작품의 특징 잘 드러나는 부분을 선별해서 수록해야함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민속극 교육은 민속극 장르 자체의 의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속극은

문학적인 측면, 음악적인 측면, 연극적인 측면이 통합적으로 고려된 민속극 교육의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새로운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 '보기⇒하기'의 수업 모형은 봉산탈춤을 주제로 '민속극이 문학, 연극, 음악 등의 총체적 활동임을 이해하다.'라는 학습목표 아래 연극을 하는 활동이다. 2차시에 실제로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봉산탈춤 장단맞춰 걸음걸이와 춤추기'를 학습해야 한다. 국어 시간에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역할 분담에서부터 연습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실제 교실 상황을 고려할 때 실행이 용이한 수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만 민속극을 문학적인 측면, 음악적인 측면, 연극적인 측면이 통합적으로 고려된 민속극 교육의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연구이다.<sup>3)</sup>

권용무(2007)는 봉산탈춤에 등장하는 인물분석을 통해 표현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봉산탈춤의 갈등표출방식을 표현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장르로 바꾸기, 다른 매체로 바꾸기, 일상생활 극화하기, 역할놀이 등을 사용한 교수법을 제안한 것이다.<sup>4)</sup> 이러한 교육 방안은 등장인물들에 초점을 맞춰 등장인물들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행위와 비언어적인 상징들의 의미에 무게를 둔 교육 방안이다. 표현교육에 있어 가면극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지혜(2011)는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탈놀이가 외적 특성인 탈과 복장만을 부각하여 교과서에 등장시킨 점과 어려운 한자어, 고어, 선정적 내용, 사회 문화적 맥락 파악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탈놀이가 초등국어교육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탈놀이의 놀이적 특성과 종합적 극예술이라는 특성을 초등학습자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

3) 김영찬, 「고등학교 민속극 교육의 실태와 지도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4) 권용무, 「<봉산탈춤의 교육방법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목할 만한 점은 초등국어과교육에서도 탈놀이 교육을 도입할 것을 주창한 첫 연구라는 점이다.<sup>5)</sup>

배동희(2007)는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장단과 춤사위를 각 배역별로 분석하여 초등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탈놀이의 신체표현활동과 음악적 요소, 탈의 조형미와 복식에 관한 미적 요소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한 것이다. 탈놀이의 신체표현활동과 음악적 요소를 민속극이라는 장르적 특성에 포함시켜 중학교 국어 교육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sup>6)</sup>

이지혜(2011)가 제시한 탈놀이 교재화 방안은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생각하며 배역을 정해 탈놀이를 해보는 것이고 배동희(2007)가 제시한 교육 방안도 음악적 요소를 살려 실제로 탈놀이를 해보는 것이다. 공통점은 초등학교국어교육과정에서는 활동에 중심을 두는 교육이라는 점이다. 초등학교국어교육과정에서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해 활동에 초점을 두는 교육을 지향한다면 중학교국어교육과정에서는 해학과 재담으로서의 의의 측면 외에도 가면극으로서의 의의 측면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정현(2007)은 공동체 제의의 한 형태로서 별신굿에 주목하여 별신굿의 연행원리와 축제성 등을 살펴보았다. 마을축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별신굿은 주술적 목적도 지니지만 각종 연행이 뒤따라 축제의 분위기를 만든다. 별신굿이 열리면 외지인들이 몰려들어 마을이 개방되고 별신굿에 포함되는 각종 연행은 별신굿의 축제성을 높인다.<sup>7)</sup> 본고에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가 공동체 문화로서의 의의 차원에서 교육되어야 함에 있어 별신굿이 갖는 지역축제적 요소들을 교육적 지식으로 마련하고자 하였다.

---

5) 이지혜, 「초등국어교육에서의 탈놀이 교재화 방안 연구-하회별신굿탈놀이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6) 배동희, 「초등학생을 위한 하회별신굿탈놀이 지도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7) 조정현, 「별신굿의 전승력과 축제적 연행의 원형」, 안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조정현·김원구(2008)의 논문은 하회별신굿의 축제성에 관한 연구이다. 별신굿이 벌어지면 이웃마을 주민들부터 상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자연스럽게 축제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풍물잡이부터 탈놀이에 등장하는 인물 역할까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되는데 하회별신굿에서 진행되는 탈놀이나 풍물잡이는 하회별신굿을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다.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축제성을 띠는 이유는 하회별신굿탈놀이에 포함된 연행이 오락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진행되는 장소가 축제적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sup>8)</sup>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오락성과 제의성을 포함한 하나의 축제였다는 점이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 하나의 교육적 지식으로 삼을 만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정현(2010)은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마을공동체신앙과 생태민속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하회마을은 낙동강이 범람하는 지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언제나 홍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생태학적 배경으로 인해 하회별신굿이 주술·종교적 대응으로 발전한 것이다. 즉 하회별신굿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마을 구성원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마을공동체신앙이었던 것이다.<sup>9)</sup>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총체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주술적 행위에서 출발하여 마을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마을구성원들의 염원이 담긴 마을공동체신앙이었다는 점이 교수·학습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임재해(2003)는 하회탈놀이의 제의성과 예술성에 관해 논하고 있다. 하회별신굿은 풍물잡이들이 주관하는 풍물굿이었으며 하회별신굿의 주체는 하회마을 풍물잡이다. 또한 하회별신굿은 마을의 서낭신을 위해 제를 올리는 공동체굿이기도 하다. 마을사람들은 서낭신에 관한 당신화를 만들어 내고 그 신

8) 조정현·김원구, 「안동지역 별신굿의 제의성과 축제성」, 비교민속학, Vol. 35 No., 비교민속학회, 2008.

9) 조정현, 「마을공동체신앙과 생태민속-하회별신굿의 생태민속학적 해석」, 비교민속학, Vol. 41 No., 비교민속학회, 2010.

화를 토대로 제의적 양식과 예술적 형상들을 만들어 낸다. 하회별신굿탈놀이의 탈과 탈놀이는 예술작품으로 창출되기까지 해 하회탈놀이의 제의성과 예술성의 뒷받침이 된다.<sup>10)</sup>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풍물굿이면서 마을굿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마을 사람들 공동의 노력이 하회별신굿탈놀이에 예술성을 부여하는 원동력이 되며 하회별신굿탈놀이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중학교국어교육과정에서도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이러한 특성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본고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지니는 자연발생적 특성과 마을공동체신앙으로서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우리나라 전통적인 공동체문화로서의 의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

10) 임재해, 「하회탈놀이의 제의성과 예술성, 그리고 민중적 창조력」, 안동학 연구 Vol. 2. No.,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2003.

## II. 하회별신굿탈놀이의 교육 양상과 교육적 의의

### 1. 하회별신굿탈놀이의 특성과 교육적 의의

#### 1) 가면극의 특성과 하회별신굿탈놀이

본고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발행된 7학년~10학년 국어 교과서들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나라 가면극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가면극 외에 탈놀이, 탈춤, 민속극, 전통극이라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중학교 1-2학기 천재교육(박영목 외)은 ‘하회별신가면극’으로 가면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학교 3-1학기 천재교육(노미숙 외)는 탈놀이, 중학교 3-2학기 비상교육(조동길 외)은 민속극, 중학교 3-2학기 해냄에듀(오세영 외)는 탈놀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학교 3-2학기 (주)미래엔(윤여탁 외)은 탈춤, 민속가면극, 탈놀이라는 용어를 다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상, 박갑수 외)는 전통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sup>11)</sup> 국어 교과서에는 가면극의 용어 사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

11)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7~9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가면극 용어 사용 빈도수

민속극	가면극	탈놀이·탈춤	전통극	기타-풍자물, 민속 가면극
국어 3-2(비상교육) 국어 하(유웨이중앙) 국어 상(교학사) 국어 상(더텍스트) 국어 하(미래엔)	국어1-2(천재교육) 국어 상(두산동아) 국어 상(디딤돌) 국어 상(신사고) 국어 상(금성) 국어 상(더텍스트) 국어 하(천재교육, 김대행 외) 국어 하(미래엔)	국어3-1(천재교육) 국어3-2(미래엔) 국어3-2(해냄교육) 국어 상(천재교육, 박영목 외) 국어 상(창비) 국어 상(해냄에듀) 국어 상(교학사) 국어 상(디딤돌) 국어 상(비상) 국어 상(더텍스트) 국어 하(천재교육, 김종철 외)	국어 상(지학사) 국어 상(디딤돌)	국어2-1(지학사) 국어3-2(미래엔)

빈도수를 따져보면 탈놀이나 탈춤이라는 용어가 교과서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텍스트에서 출판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하) 273쪽에 민속극의 종류를 수록하고 있는데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참조하기 위해 살펴보았다. 서울 지역은 산대놀이, 황해도 지역은 탈춤, 함경도·강원도 지역은 놀이, 낙동강 서쪽 지역은 오광대, 낙동강 동쪽 지역은 야유(들놀음)으로 지역별로 가면극의 명칭을 구분해 놓았다.<sup>12)</sup> 이 교과서에 따르면 탈춤이나 탈놀이 등은 민속극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속하는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교과서 안에서도 민속극·가면극·탈춤·탈놀이 등이 같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극이라는 장르적 특성에 주목하여 전통극 또는 가면극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며 중학교 수준에서는 극이라는 장르적 특성 보다는 탈놀이나 탈춤에 주목하여 탈놀이나 탈춤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경욱(2007)은 탈놀이, 탈춤, 탈놀음 등을 연극적 성격에 주목하여 가면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사진실(2002)은 민속극이나 가면극이 아닌 전통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궁정연극이 끊임없이 토착적인 민속문화의 자양분을 받아들여 발전하였으므로 궁정연극을 포함한 궁정문화의 가치와 민속문화를 포함한 민속극을 함께 탐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한 것이다. 또한 사진실(1997)은 문화적 층위 및 그 교섭 양상이 연극 등 공연예술 양식의 발전과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문화적 층위란 궁정, 시정, 외방으로 나뉘는 세 층위를 말하며 이 세 층위가 서로 교섭하는 관계 속에서 연극이나 공연예술의 양식에

		국어 하(천재교육, 김대행 외) 국어 하(미래엔)		
5	8	13	2	2

12) 김병권 외, 『고등 국어 하』, 더 텍스트, 2010.

서로 영향을 주며 형성·발전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통극은 민속극 외에 궁정 연극과 시정의 상업적인 연극이 포함된 개념이다.<sup>13)</sup>

전경욱(2007)은 한국의 가면극을 ‘본산대놀이 계통 가면극’과 ‘마을굿 계통 가면극’<sup>14)</sup>으로 나누고 있다. ‘본산대놀이 계통 가면극’은 조선 후기 서울 근교에서 성장하여 발전한 가면극으로 전문적인 놀이꾼에 의해 공연된 가면극이다. 서울, 경기의 별산대놀이, 황해도의 해서탈춤, 경남의 야류와 오광대, 남사당패의 덧퇴기 등이 이에 속한다.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굿에서 유래한 ‘마을굿 계통 가면극’은 마을농민들이 주축을 이룬 농악대의 잡색놀이 중에 하나였던 탈춤이 가면극으로 발전한 것이다. 하회별신굿탈놀이, 강릉관노가면극 등이 바로 ‘마을굿 계통 가면극’에 속한다. 한편, 탈춤과 산대희(山臺戲)나 나례희(儼禮戲)와의 관련성이다. 산대희(山臺戲)나 나례희(儼禮戲)는 조선전기까지 국가의 행사로 행해지고 있었다. 나례는 재앙을 가져오는 잡귀를 몰아내는 곳으로 선달그믐에 궁중에서 행해졌으며, 산대희(山臺戲)는 산대라는 다락을 세워 그 앞에서 놀이패가 노는 놀이로서 국가 경축일에 행해졌다. 산대희나 나례희는 국가적인 행사이므로 국가 기관인 산대도감(山臺都監) 또는 나례도감(儼禮都監)이 공연을 관장했다. 이러한 연유로 탈춤을 상층문화에서 하층문화로 이행한 침강문화재(沈降文化財)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탈춤은 국가 행사와는 별도로 민간에서 존재하던 양식이었으므로 민중 예술로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이다.<sup>15)</sup> 탈춤의 주체는 민중으로서 민중의 삶을 대변해 주며 탈춤 속에 담긴 해학과 풍자는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을 향한 저항의 표현이 되므로 민중예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탈춤이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농촌에서 행하던 마을굿에서 탈춤이 비롯되었다고 보

13) 사진실, 『공연문화의 전통』, 태학사, 2002, 6~7쪽, 사진실, 『한국연극사 연구』, 태학사, 1997, 175~188쪽 요약·정리함.

14) 전경욱, 『한국 가면극 그 역사와 원리』, 열화당, 2007, 125~140쪽.

15)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弘盛社, 1980, 47쪽.

는 견해이다. 농촌에서는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마을굿을 행하는데 이 굿놀이에는 농악대의 잡색놀이가 뒤따른다. 잡색들은 가면을 쓰거나 분장을 하고 풍물잡이의 농악기 연주에 맞춰 춤을 추거나 노래 부르고 곡예를 한다. 이후 탈춤은 조선후기 도시의 성립과 함께 상업자본의 투입으로 농촌탈춤에서보다 그 규모가 확대되어 도시탈춤을 형성하게 된다. 도시탈춤이 농촌탈춤에 비해 등장인물도 많아지고 대사도 늘어나는데 조선후기 서민생활의 변화와 함께 민중의식의 성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춤의 변모 과정에서 그 기원을 밝히는 데 있어 궁정의 나례 산대희와 탈춤의 관련성 문제는 아직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sup>16)</sup>

가면극이라는 장르에는 연극적인 측면, 음악적인 측면, 무용적인 측면 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가면극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탈분장이나 춤사위 또한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탈은 극중 등장인물의 성격, 계급, 인격을 표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서가 함축된 축소판임을 알게 해 준다.<sup>17)</sup> 해학적이며 유머스러운 표정이 특징이며 또한 탈은 관객들이 등장인물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손쉽게 알아차리게 함으로써 극에 몰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탈춤의 춤사위는 익살스럽고 극적인 표현이 특징인데 왜냐하면 당시 사회의 인물을 대변해 주는 탈분장을 하고 추는 춤이므로 극중 인물의 성격을 잘 대변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sup>18)</sup> 탈춤에서 사용하는 악기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쟁과리, 징, 북, 장고 등이 주를 이룬 농악기이며 주로 서서 반주를 하지만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 하회별신굿탈놀이나 야류(野遊), 남사당패의 덧보기, 북청사자무 등은 주로 서서 반주를 하며 오광대, 양주

16) 사진실, 『한국연극사 연구』, 태학사, 1997, 175쪽.

17) 조고미, 「탈 분장과 현대 분장의 비교 연구 -봉산 탈을 중심으로-」, 『민속학술자료총서 555 가면극 11』, 도서출판 우리마당터, 2003, 413쪽.

18) 김영란, 「탈춤에 나타난 북방계와 남방계 춤사위 비교」 『민속학술자료총서 탈춤 10』, 도서출판 우리마당터, 2003, 6~8쪽.

산대놀이, 봉산탈춤 등은 악사석(樂土席)에 앉아서 반주를 한다. 하회별신굿 탈놀이나 야류(野遊) 등에서는 풍물잡이들이 반주를 담당했으며 오광대, 양주 산대놀이, 봉산탈춤 등은 풍물잡이가 아닌 악사가 반주를 담당했다.<sup>19)</sup> 풍물잡이들이 반주를 담당하는 경우는 농촌처럼 한 곳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그러하며 주로 도시에서 공연되는 극인 경우 전문적인 악사가 반주를 하는 형태를 띤다.

우리나라 가면극은 현장성 내지 가변성을 지닌다.<sup>20)</sup> 우리나라 가면극은 현대극처럼 배우가 정해진 대본을 실수 없이 그대로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마다 배우들 간 혹은 배우와 관중들 간의 넘나들이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가면극의 극중 장소와 공연 장소가 일치하는 극적 효과는 필요에 따라 장면의 전환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공간의 넘나들이 자유롭고 극중 등장인물들과 풍물놀이꾼 그리고 관객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소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을 지닌다. 즉 우리나라 가면극은 관중석과 무대의 뚜렷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공연하는 배우들과 청중들 간에 소통이 자유로운 열린 공간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가면극의 주요 요소에 해당되는 탈분장, 춤사위, 악기 연주 그리고 가면극의 공연 장소가 지니는 현장성 내지 가변성 등이 국어 교육에서 효과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극이라는 장르적 성격을 잘 반영한 가면극 교육이 될 것이다.

하회별신굿탈놀이<sup>21)</sup>는 경상북도 안동군 풍천면 하회리에서 전승되어 온 가

19)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弘盛社, 1980, 113쪽~130쪽.

20) 沈雨晟, 『韓國의 民俗劇』, 창작과비평사, 1984, 11~19쪽.

21) 하회별신굿은 192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가, 1940년 12월 14일 한 차례 탈놀이가 연희된 적이 있으며, 1928년 별신굿에서 각시광대 역할을 맡았던 이창희翁을 1978년에 발견함으로써, 하회별신굿 탈놀이의 진모가 밝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1987년 11월 12일 1988년 2월 10일 2차에 걸쳐 실시한 하회민속자료 보고(河回民俗踏查 報告)에서 밝히고 있다. 成炳禧·金宅圭, 河回別神굿놀이

면극으로서, 198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되었고 하회리에 전수회관을 두고 있다. 별신굿은 보통 십 년에 한 번씩 신탁(神託)에 의해 임시로 행해지는 큰 규모의 서낭굿이다. 하회에서는 매년 정월 15일과 4월 8일에 평상제(平常祭)를 지내다가, 부정기적으로 별신굿을 행한다. 하회별신굿탈놀이 농촌마을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별신굿에서 시작된 대표적인 농촌가면극이다.<sup>22)</sup> 하회별신굿탈놀이 형성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공동체 문화에 주목한 교수·학습에 방안이 필요하다.

서대석(1997)은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제 1과장 강신(降神), 제 2과장 주지, 제 3과장 삼석놀음, 제 4과장 파계승(破戒僧), 제 5과장 양반 선비 세도 자랑, 제 6과장 살생(殺生), 제 7과장 살림살이, 제 8과장 환재(還子), 제 9과장 혼례, 제 10과장 신방(新房), 제 11과장 헛천굿(거리굿), 제 12과장 당제(堂祭) 총 12과장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는 제 1마당 강신(降神), 제 2마당 무동마당, 제 3마당 주지마당, 제 4마당 백정마당, 제 5마당 할미마당, 제 6마당 파계승마당, 제 7마당 양반선비마당, 제 8마당 당제(堂祭), 제 9마당 혼례마당, 제 10마당 신방(新房)마당 총 10마당으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구성하고 있다. 하회별신굿탈놀이 마당 구성이 이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하회민속자료 보고에서 밝히고 있듯이 하회별신굿이 1928년에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가,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차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회별신굿탈놀이 전체 과장은 다음과 같다.<sup>23)</sup>

---

調査報告, 1978, 경상북도 대구. 「河回別神굿탈놀이」, 朴鎭泰, 比較民俗學 6輯, 1990, 재인용.

22) 전경욱, 『한국 가면극 그 역사와 원리』, 열화당, 98~99쪽.

23) 서대석 편, 『구비문학』, 해냄, 1997, 541~555쪽. 사진은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 참조.



## 제 1과장 강신(降神)

성황당(하회의 성황당은 상당(上堂), 처녀당이라고도 부르는데, 의성(義城) 오토산(五土山)의 김씨 여자가 15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이곳 서낭신이 되었다고 한다.)에 오색포(五色布)를 늘인 성황대(성황신이 깃들이는 장대)가 서 있고 성줏대(하회 별신굿 탈놀이할 하기 전에, 당산에 세워 신이 내리기를 비는 막대)가 세워져 있다. 산주(山主 별신 행사의 주제자主祭者)와 광대들이 별신 행사를 하도록 강신(降神)하여 달라고 기도한다.

무녀 : 안동 성황님하, 팔도강산 성황님하, 오방지신 성황님하, 하회동 무진생 성황님하(하회의 서낭신은 무진년생으로 알려져 있다), 다로 다리 다리러 다로리 다로리 로마하 하도람 하도람 하도람 다리러 로마하 다리령 디러리 디러리. 무진생 정월에 별신굿을 드리오니 나리소서 내려주소 슬스리 나리소서. 성황대에 나리소서.

(무녀의 주문 기도가 끝나면 성황대에 신령(神鈴<sup>신의 도래를 알리는 방울</sup>)이 운다. 무녀는 주악에 맞추어 춤춘다. 다시 엎드려 성황당에 절한다.)



## 제 2과장 주지

(별신굿에서, 나쁜 짐승이나 귀신을 물리치려고 쇠우는 사자탈을 쓴 광대가 등장하여 춤을 춘다.)

 주지마당

무녀는 엎드려 절하고 있고 주지탈을 손에 든 광대가 붉은 보자기로 전신을 가리고 머리 위로 올린 두 손으로 딱딱 입을 개폐(開閉)시켜 소리를 내면서 나온다. 양쪽으로 갈라서서 사방을 돌아다니며 춤춘다. 옷가지를 입에 물어서 성황대에 건다. 주지가 춤을 추면서 나가면 무녀 일어나 한 바퀴 춤을 추면서 나간다.

### 제 3과장 삼석놀음

삼석놀음은 광대들이 나와서 놀이하는 게 아니고 무녀가 토끼같이 귀가 난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여러 가지 형태의 춤을 추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전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놀이에 관한 것도 찾을 길이 없다.



파계승마당

### 제 4과장 파계승(破戒僧)

박자에 맞추어서 각시가 춤을 추며 나온다.

각시 : (사방을 살핀다.) 누구 아무도 없나? (춤 추다가 중단하고 갑자기 소변을 보아야 할 급한 행동으로 사방을 살피다가 앉아서 오줌을 누다. 시원한 느낌의 몸을 댄다.)

중 : (춤 추던 각시가 오줌 누는 광경을 목격한다.) 허허 저게 뭐로? 거참 이상하다. (각시의 소변 본 자리를 가서 사방을 살핀다. 엎드려 소변 본 자리의 흙을 모아 쥐고 서서 냄새를 맡는다. 성(性)에 대한 쾌감을 느끼는 듯한 형용의 괴기한

웃음.) 호호호, 아이구 냄새야—찌르내야. (손바닥을 툭툭 던 다음 합장하며)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절망과 체념이 뒤섞여) 예라—중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저기 각시하고 춤이나 추고 놀자.

각시 : (비로소 중이 온 것을 깨닫고 반대 방향으로 춤추며 간다.)

중 : (각시에게 다가서려다 망설인다. 다시 다가가서 각시의 어깨를 툭 치며)

여보 각시…….

각시 : 애이고 깜짝이야, 세상에 중이 다—(다시 반대쪽으로 간다.)

중 : (밧을 낸다.) 어흠 나도 이만하면 사내대장부지. (각시에게 다시 다가서며) 여  
보 각시, 나도 사람인데, 우리 같이 춤이나 추고 놀아 봅시다. (애원하듯 각시의  
팔을 잡는다.)

각시 : 애이고 별꼴이야. (중의 손을 뿌리치며 반대쪽으로 간다.)

중 : 허허 여보 각시, 사람 팔시하지 마소. 일, 일가산에 늙은 중이, 이, 이가산에  
가는 길에, 삼, 삼로(三路) 로상에서, 사, 사대부녀(士大夫女)를 만나, 오, 오줌 냄새  
를 맡고, 육, 육정이 치밀어서, 칠, 칠보단장 안 해도, 팔, 팔자에 있건 없건, 구, 구  
별할 게 뭐 있소. 십, 썸<sup>(여성의 성기를 비속하게 이르는 말)</sup>이나 한번 주소.

각시 : 아이고 세상 참 말세(末世)로다. 일, 일부(一婦)가 되었다가, 이, 이부(二夫)  
를 섬길쏜가. 삼,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알아보니, 사, 사정을 통할쏜가. 오, 오너라  
이 중놈아, 육, 육관사<sup>(미상. '육환장(六環杖)'의 잘못(?))</sup>를 걸쳐메고, 칠, 칠가사를 걸쳐메고,  
팔, 팔도강산 다니면서, 구, 구구이 배운 것이, 십, 썸 달라고? 네 예미한테 가서  
달라 그래라.

중 : 허허 각시, 우리 그러지 말고 춤이나 추고 놀아 봅시다.

각시 : (중의 끈덕진 유혹에 이끌리어 춤춘다.)

초랭이 : (방정맞게 쿵쿵 바쁜 제자리걸음으로 뛰어나오다가 각시와 중이 춤추는  
광경을 보고 놀라는 표정이다.) 아이고 우습다.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노? (깔깔

댄다.)

중·각시 : (초랭이가 나온 것을 알고 당황하여 중이 각시를 업고 나간다. 이때 각시는 신발이 벗겨진 한 짝을 줍지도 못하고 중의 등에 업혀 나간다.)



### 제 5과장 양반 선비 세도 자랑

#### 양반선비마당

초랭이 : 아? 각시하고 중놈하고 어디 갔노? 아 —저리로 도망가는 구나. (각시와 중이 달아난 쪽으로 바쁜 제자리걸음으로 뛰다가) 아이고! 요게 뭐로? 아—각시 신이구나. (각시가 흘리고 간 꽃신을 품에 안고 혼자 좋아서 몸을 비틀다가 넘어진다.) 아이고 궁둥이야. (일어나 찢룩찢룩거리며 관중들에게 신을 줄 듯 줄 듯 하면서 춤을 춘다.) 보소! 이거 이쁘지? 이거 좋까? 안 돼! 보소! 이거 이쁘지? 이거 좋까? 안 돼! (갑자기 무엇인가를 생각해 낸 듯이) 아 참! 우리 양반을 불러와야지. (조작조작 뛰어가면서) 양반요! 양반요, 빨리 오소 빨리.

양반 : 어흠. (거드름을 피우면서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다.)

양반 : (귀찮다는 듯이) 이놈! 이놈이 왜 이리 수답노?(수다인고?) (부채로 초랭이의 병거지를 툭 친다.)

초랭이 : (무안하여 어쩔 줄 모르다가) 양반요! 각시하고 중하고 춤추다가 도망갔어요.

양반 : 뭣이라고? 허허 망측한 세상이로다. (주위를 빙빙 돌며 세상을 개탄하듯 부채질을 한다.)

선비 : (이때<sup>(선비의 하인역. 바보탈이라고도 한다.)</sup>를 앞세우고 나온다.)

초랭이 : 이매야, 이노마야.

이매 : (비실비실 바보스런 걸음걸이로 초랭이 쪽으로 걸어오며) 왜 이노마야.

초랭이 : (귓속말로) 아까 중하고 각시하고 춤추다 도망갔대이.

이매 : 허허, 우습다, 우스워. (비실비실 선비에게 가서) 선비 어른요, 아까 중하고 각시하고 춤추다가 도망갔다 그래요.

선비 : (신경질적으로) 뭣이라고, 에이 고약한지고. (담뱃대 재를 땅바닥에 탁탁 툨다.)

초랭이 : (이때에게 가서 꽃신을 가지고 이때와 주고받다가 껴안으며 수작한다.)  
양반 : (그 광경을 보고 못마땅스러운 듯 부채를 집어 병거지를 때리며) 이놈! 거기서 그러지 말고 부네<sup>(아름다운 여인 역. 다른 가면극의 '소무'에 해당한다.)</sup>나 불러오너라.  
초랭이 : (바쁜 제자리걸음으로 뛰어나가 부네를 데리고 나온다.)  
부네 : (요사스럽게 춤을 추며 몸을 비비 꼬아 대면서 나온다.)  
초랭이 : (부네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냄새를 맡는다.)  
부네 : (초랭이를 때리려고 하지만 손이 뒤로 가다가 그만둔다.)  
초랭이 : (조작조작 뛰어와서) 양반요, 부네 왔니더.  
양반 : (부채질을 하다가) 어디 어디?  
부네 : 양반 내 여기 왔잖나.  
양반 : 부네야, 국추단풍(菊秋丹楓)에 지체후만강(氣體候萬康)하시며 보동택이 감환(感患<sup>감기의 존댓말</sup>)이 들어 자동양반 문안드리오.  
부네 : 그 문안 감사하오나 감자<sup>(미상. 하인들을 두고 하는 말인 듯)</sup> 한 쌍은 왜 왔소?  
양반 : 허허허, 그곳이 하도 험악하와 보호자로 왔나이다. 수목은 울창하고 양대꽃이 만발하니 들어가기만 하면 백혈(白血)을 토하고 죽어 가기에 보호자로 왔나이다.  
부네 : 하도 감사하와 버선 한 켤레 아되나이다.  
양반 : 허허, 애, 부네야. (양반 부네 어울려 춤춘다.)  
선비 : (그 광경을 보고 못마땅하여) 엑키! 고약한지고. 에헴 에헴.  
부네 : (양반과 춤추다가 선비의 기침 소리를 듣고 선비에게 간다.) 선비 어른 내 여기 왔잖나?  
선비 : 오냐 오냐, 부네야. (부네를 안듯이 춤춘다.)  
양반 : (기분이 좋아서 혼자서 춤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어쩔 줄 모르며) 아니? 저런 저 망할년의 요부(妖婦)가? 어흠 어흠.  
부네 : (양반의 기침 소리에 다시 양반에게 간다.) 양반 내 여기 있잖나.  
양반 :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듯이) 오냐 오냐.  
부네 : (양반과 어울려 춤추다가 선비를 본다.)  
선비 : (부네와 눈길이 마주치자) 아니, 저런 저 요망한 계집년 봤나? 에헴 에헴.  
부네 : (다시 선비에게 간다.)  
양반 : (그 광경을 보고) 아니, 저놈의 선비가? 옳거니 여보게 선비, 이리 좀 오게. 저길 보면 좋은 구경이 있네. (선비에게 마을 쪽을 가리키고 나서 부네에게 간다.)  
선비 : (양반이 가리킨 쪽을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없자 돌아서서 놀라며) 아니? 저놈의 양반이? (양반에게 간다.) 여보게 양반, 이리 오게. 저기에서 각시들이 목욕을 하고 있네.  
부네 : (선비와 양반을 바라보며) 호호호, 내 때문에 저래 싸우는구나.

양반 : (선비가 가리킨 쪽을 바라보다가 돌아서며) 아니? 저 놈의 선비가? 나를 속여? 여보게 선비, 자네가 감히 내 앞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선비 : 그렇다면 자네가 진정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양반 : 아니, 그림 자네 지체가 나만 하단 말인가?

초랭이·이매 : (자기 상전의 세도 사랑을 훔내 낸다.)

양반 : 암 낮고말고.

선비 : 뭣이 나아, 말해 봐.

양반 : 나는 사대부(士大夫)의 자손인데…….

선비 : 뭐 사대부? 나는 팔대부(八大夫)의 자손일세.

양반 : 허허, 팔대부는 또 뭐야?

선비 : 팔대부는 사대부의 갑절이지.

양반 : 우리 할아버지는 문하시중(門下侍中)이거던.

선비 : 아 — 문하시중 그까짓 거? 우리 아버지는 바로 문상시대(門上侍大)인데…….

양반 : 문상시대! 그건 또 뭐야?

선비 : 문하(門下)보다는 문상(門上)이 높고 시중(侍中)보다는 시대(侍大)가 크단 말일세.

양반 : 그것 참 별꼴 다 보겠네.

선비 : 지체만 높으면 제일인가?

양반 : 그러면 무엇이 또 있단 말인가?

선비 : 첫째 학식이 있어야지. 나는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다 읽었네.

양반 : 뭣이, 사서삼경? 나는 팔서육경(八書六經)을 다 읽었네.

선비 : 도대체 팔서육경은 어디 있으며 대관절 육경을 또 뭐야?

초랭이 : (방정맞게 양반과 선비 사이로 뛰어들며) 헤헤헤, 나도 아는 육경 그것도 모르니까? 팔만대장경, 중의 바래경<sup>(불경의 일종인 팔양경八陽經)</sup>, 봉사의 안경, 약국의 길경<sup>(질경이. 한약재로 쓰이는 풀임)</sup>, 처녀 월경, 머슴의 쇠경<sup>(새경. 머슴에게 주는 한 해의 품삯)</sup>.

이매 : 그것 맞다 맞아.

양반 : (호뭇한 표정으로) 이것들도 아는 육경을 선비라는 자가 몰라?

선비 : (혀를 차면서) 우리 싸워야 피장파장이니 그러지 말고 부네나 불리노세.

양반 : 암, 좋지. 애 부네야 우 — 육.

부네 : (양반과 선비가 자기 때문에 싸우는 모양을 지켜보다가 호들갑스런 춤을 추며 나온다.)

양반, 선비, 부네 어울려 춤을 춘다. 양반이 부네와 춤을 추면 선비가 양반을 밀치고 부네를 껴안듯이 자기 쪽으로 데리고 가서 춤을 추고 양반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

할미 : (양반, 선비, 부네가 춤추고 노는 게 흥에 겨워 나온다. 양반과 선비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부네와 선비가 어울려서 춤추는 사이에 양반과 짝이 되어 춤춘다.)

양반 : (흥에 겨운 어깨춤으로 빙빙 돌다가 부네가 없고 할미를 보자 화가 나서) 아니? 이놈의 늙은 할망구가? 예끼, 이 할미야! (할미를 밀어 버린다.)

할미 : (뒤로 나가자 빠질 뻔하다가 화가 나서) 이놈, 양반아! 너도 나처럼 늙어 봐. (선비에게로 간다. 부네가 옆에서 춤추는 줄 알고 선비는 팔을 들어 도포 자락을 늘이고 춤을 춘다.)

선비 : (양반과 마찬가지로) 아니, 이 요망한 할망구가? 예끼, 이 할망구야. (할미를 밀어제치고 부네에게 간다. 양반과 부네 사이에 끼어들어 부네와 마주보며 끌어안듯이 춤을 춘다.)

할미 : 예끼 이놈, 너도 똑같은 놈이구만. 에이고 나가야지.

초랭이 : (쿵쿵 바쁜 걸음으로 뛰어나오다가 할미를 본다.) 할매요! 어디노? 내하고 춤추고 노시더.

할미 : 그래, 그래, 초랭이가 제일이지?

(양반, 선비, 초랭이, 이때 춤을 추고 있다.)

백정 : (심술긋은 걸음걸이로 배꼽이 보이고 가슴을 앞으로 쭉 내밀고 뒤에 허리 받침의 오른손에는 소불알을 들었다.) 헤헤헤, 꿀들 참 좋다. (춤추는 광대들을 바라보다가 양반과 선비 사이로 뛰어들면서) 쟤님! 알 사이소!

양반 : (깜짝 놀라며) 이놈! 한창 신나게 노는데 알이라니?

백정 : 알도 모르니껴?

초랭이 : (양반과 선비 사이로 뛰어나오면서) 달걀, 눈알, 새알, 대감 통불알.

백정 : (호탕하게 웃으며) 맞았다 맞아, 불알이야 불알. (소불알을 흔들흔들 거린다.)

선비 : 이놈! 불알이라니?

백정 : 소불알도 모르니껴?

양반 : 이놈! 쌍스럽게 소불알은 어쩐 소리냐. 안 살 테니 썩 물러가거라.

백정 : 소불알을 먹으면 양기(陽氣)에 역시기 좋다는데…….

선비 : 뭣이 양기에 좋다? 그럼 내가 사지.

양반 : (부네와 수작을 하다가 황급히 나서며) 야가 나한테 먼저 사라고 했으니 이것은 내 불알이야. (백정이 쥔 소불알을 잡는다.)

선비 : (백정이 쥔 소불알을 잡으며) 아니, 이것은 결코 내 불알이야. (양반과 선비는 서로 소불알을 잡고 당긴다.)

백정 : 아이구, 내 불알 터지니더?

할미 : (양반, 선비, 백정이 서로 잡아당기다가 떨어뜨린 소불알을 쥐고) 찌찌찌, 소불알 하나를 가지고 양반은 지 불알이라고 하고 선비도 지 불알이라고 하고 백

정놈도 지 불알이라 하니 도대체 이 불알은 뉘 불알인고? 육십 평생을 살아도 소 불알 가지고 싸우는 꼴들은 참 봤다 참 봤어. 예이고, 몹쓸 인간들이라니.  
(양반과 선비는 부끄러운 행동으로 나가고 그 뒤를 따라 광대들 모두 나간다.)



 백정마당

### 제 6과장 살생(殺生)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에서는 ‘백정마당’으로 구성하고 있다.

백정 : 염통 사소, 염통요. 아직 뜨뜻한데 이대로 썰어서 회를 해먹어도 좋고 불고기 중에는 소 염통이 제일 좋다는데 불고기감으로 안 살라니껴? 허허, 아무도 안 사네! 그럼 염통 사먹지 말고 쓸개나 염통 없는 양반들 사서 넣으소. 사람 것보다 커서 오줄(미상) 없는 양반에 오줄 생기고 염치없는 양반네들 염치 생기니더. 허허허, 여기 있는 양반들 다 오장 쓸개가 바로 박힌 양반들인 모양이지? 자, 그렇다면 진짜 소불알 사소. 지 돈 주고 지 양기 돈굴라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니껴? 왜 우물쭈물하지? 공자(孔子)도 자식 낳고 살았지요. 자식을 불라면 양기 쉬기 전에는 다른 도리가 없을것시더. 헤헤헤, 이것들 모두 점잖바람에 이놈의 장사 망쳤네, 망쳤어. (칼과 도끼를 손에 들고 휘두르며 특이한 춤을 춘다. 갑자기 천둥을 알리는 징소리. 벼락 치는 소리에 놀란 백정이 허겁지겁 나간다.)



 할미마당

### 제 7과장 살림살이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에서는 ‘할미마당’으로 구성하고 있다.

베틀에는 할미가 앉아서 베를 짜면서 노래한다. (가사 내용은 일평생 살림살이의 고달픔을 노래한 것.)

떡다리<sup>(할미의 남편 역)</sup> : 할미는 일평생 베를 짜도 새 옷 한번 못 입고—성황당에 옷도 한번 걸어보지 못하면서…….

할미 : 팔자가 그런 걸 도리 있나?

떡다리 : 성황당에 옷을 걸어 보면 복이 저절로 들어올 건데.

할미 : 그럴 팔자가 안 되는 걸, 떡다리 같은 소리 되게 하네.

떡다리 : 그런데 내가 어제 장에서 사온 청어는 벌써 다 먹었노?

할미 : 어제 저녁에 내가 아홉 마리 당신 한 마리, 오늘 아침에 내가 아홉 마리 당신 한 마리 두 두름 다 먹었지.

떡다리 : 어디 저렇게 먹으니 이가 다 빠지지. (마을 풍경을 노래한다.)

### 제 8과장 환재(還子)

광대 전원이 모여서 춤을 추고 노는데 별채<sup>(별차別差. '별차'는 관가에서 특별히 나온 차사.)</sup>가 나와서 환재<sup>(還子, 곧 환곡還穀. 관가에서 봄에 곡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고 가을에 받아들이던 제도.)</sup> 바치라고 외치면 전원이 당황한 표정을 짓는데 별채는 온갖 난폭한 행동을 함부로 한다.



### 제 9과장 혼례

총각과 각시가 혼례식을 올린다. (이때 혼례식용 자리를 가져가면 복을 받는다고 하여 사람들은 다투어서 자리를 사서 바친다.)



## 제 10과장 신방(新房)

총각과 각시의 결혼 초야에 각시가 총각이 잠든 후 궤를 열면 각시의 간부인 중이 나와서 총각을 살해한다.

할미 : (주안상을 차려 들고 신방에 넣어 준다.)

각시 : (주안상을 마주 놓고 총각에게 술을 따라 권한다.)

초랭이 : 문구멍을 뚫어서 이 광경을 들여다보며 안절부절이다.)

이매 : (부네와 수작을 하면서 나온다.)

초랭이 : (떠들지 말라고 하며 문구멍을 가리킨다.)

부네 : (문구멍으로 들여다본다.)

이매 : (못 보아서 애를 쓴다.)

초랭이 : (부네 뒤로 가서 궁둥이를 어루만지다가 냄새를 맡으며 몸을 비비 끈다.)

이매 : (화가 나서 부네에게 심술을 부린다. 부네의 사타구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다시 부네의 하반신을 더듬어 내려간다.)

부네 : (이매의 뺨을 때린다는 게 옆에 서서 문구멍을 들여다보고 있는 초랭이를 때린다.)

초랭이 : (발을 동동 구르며 부네에게 달려든다.)

이매 : (부네에게 응큼한 동작을 하면서 초랭이를 부네에게 밀어 준다.)

초랭이 : (부네를 안고 좋아한다.)

부네 : (조용히 빠져 나온다.)

이매 : (부네를 데리고 밖으로 달아난다.)

초랭이 : (혼자 좋아하다가 없어진 부네와 이매를 찾아 나간다.)

각시 : (살며시 문을 열고 나와 사방을 살피다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궤짝을 연다.)

중 : (궤짝 속에서 나온다.)

각시 : (중에게 안기며 몸부림친다.)

중 : (각시를 안고 알았다는 듯이 몸을 비벼 댈다.)

각시 : (중의 품에서 빠져 나와 다시 사방을 살핀다.)

중 : (잠자는 총각의 코에 귀를 대고 숨소리를 들은 뒤 음흉한 웃음을 보인다. 칼을 높이 치켜들어 잠든 총각의 가슴을 향하여 내리 찌른다.)

각시 : (이 광경을 문구멍으로 보다가 뽀서리를 친다.)

중 : (피물은 칼을 높이 치켜들고 호탕하게 웃는다.)

(각시, 중은 서로 얼싸안고 성욕에 가득 찬 행동으로 몸을 비벼 대다가 번민의 춤을 춘다. 각시를 따라 중이 나간다.)

### 제 11과장 헛천굿(거리굿)

별신 행사의 최종일 음력 정월 15일 마을 앞길에서 제물을 차려 놓고 모든 귀신들이 하회 동네에 침범하지 못하게 굿을 올린다.

<채록자 주 : 광대들은 저마다 자기의 독특한 춤을 한 사람씩 차례로 춤춘다.>

무녀 : (강신 주문) 동방에 지국천왕님하 남방에 광목천왕님하 남무사방에 전자천자 천왕님하 북방산에 마미사문 천왕님하 내외에 향사목 천왕님하, 무진생 성황님하 다리 다리 데러 디로 로마하 하도람 다리러 다로링 다리러. 정월이월 드는 액운(모질고 사나운 운수) 삼월삼진(삼짓날) 막아내고 사오월 드는 액운 유월유두(流頭) 막아내고 칠월팔일 드는 액운 구월구일 막아내고 시월동지(冬至) 드는 액운 납월(음력 선달을 달리 이르는 말) 납일(민간이나 조정에서 조상이나 종묘 또는 사직에 제사 지내던 날) 막아내고 매월매일 드는 액운 초랭이 장구로 막아내세.

초랭이 : (장구를 메고 나온다.)

(광대들은 초랭이 장구에 맞추어 한 사람씩 나와 춤을 추다가 삼신당 고목나무에 탈을 벗어 걸어 놓고 나간다. 주시탈과 신장대(무당이 신장(神將)을 내릴 때에 쓰는 막대기나 나뭇가지)마저 봉납한 뒤에 산주(山主)의 지시를 기다린다.)



### 제 12과장 당제(堂祭)

별신놀이 최종일 야삼경(밤 열한 시에서 새벽 한 시 사이)에 성황당에 올라가서 성황대를 봉납하고 일년간의 동네 무사식재(無事息災) 부처 또는 보살의 힘으로 온갖 고난과 재해를 소멸시킴)를 기도하고 다음에 국신당(國神堂 중당中堂이라고도 부르는데, 신체(神體)는 미상이다. 전설적인 가면 제작자 안도령을 봉안한 도령당이라는 설이 있다.) 삼신당(三神堂 성황당(상당) 여서낭의 시어머니 신을 모신 당으로 하당(下堂)이라고도 부른다.)에 차례로 제(祭)를 올리면 별신 행사가 종료되므로 광대들은 꽃

병거지를 벗어 삼신당에 걸어 두고 약 15일 간이나 가볼 수 없었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사진참조 <http://www.hahoemask.co.kr>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하회별신굿의 구조는 신내림을 받는 강신(降神)과정, 신을 즐겁게 해 드리는 오신(娛神)과정, 신을 다시 본디 자리로 돌려보내는 송신(送神)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회별신굿에 연희된 탈놀이는 신을 즐겁게 해드림으로써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고 마을의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다.<sup>24)</sup> 제 1과장은 별신굿을 하기위한 신내림을 하는 과정이다. 제 2과장 주지에서 주지탈의 모양을 살펴보면, 하늘을 상징하는 날짐승의 털, 땅을 상징하는 들짐승의 주둥이, 물을 상징하는 물고기 지느러미의 몸통이 합쳐져 있다. 조정현(2010)은 하회마을에서 주지는 탈놀이의 벽사, 판의 정화 기능과 함께 신이 한 존재를 통한 자연재해의 통제 역시 동시에 기원하는 존재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있다.<sup>25)</sup>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이 성황대에 옷을 걸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하여 속곳 바지를 좋은 자리에 놓아둔다고 한다.<sup>26)</sup> 제 6과장 살생(殺生)에서 백정은 방금 잡은 소의 염통과 불알을 꺼내들고 사람들에게 사라고 한다. 염치없는 양반들에게 염통을 권하고 점잖은 체하는 양반들에게 소 불알을 권하는 행위는 양반의 위선을 풍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8과장 환재(還子, 곧 환곡還穀. 관가에서 봄에 곡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고 가을에 받아들이던 제도)는 환곡 제도를 남용하여 백성들을 착취한 중간관리를 풍자한 것이다.<sup>27)</sup> 제 11과장 헛천굿(거리굿)은 홍수로 인해 헛천이 생기지 않도록 비는

24) 이두현, 『한국의 탈춤』, 일지사, 1995, 30~31쪽.

25) 조정현, 「마을공동체신앙과 생태민속-하회별신굿의 생태민속학적 해석」, 비교민속학, Vol. 41 No., 비교민속학회, 2010.

26) “채록자 주 : 마을 아낙네들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이 성황대에 옷을 걸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 하여, 옷을 주지가 입에 물고 성황대에 걸어 놓을 수 있는 좋은 자리에 놓아둔다(옷은 속곳 바지).”, 서대석 편, 『구비문학』, 해냄, 1997, 542쪽.

곳이다. 홍수로 인해 헛천이 형성되면 하회마을은 완전히 고립되게 되는데, 결국 헛천곳(거리곳)은 홍수라는 자연재해를 막고자 하는 별신곳의 목적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sup>27)</sup> 제 12과장 당제(堂祭)는 신을 다시 돌려보는 송신(送神)과정으로 별신 행사 내내 사용했던 탈을 제자리에 모셔두는 것으로 별신굿 행사가 끝이 나게 된다.

한정된 수업 시간에 위에서 언급한 하회별신굿탈놀이 각 과장을 모두 배우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불가피하게 몇 개의 과장만 선택하여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5과장 ‘양반 선비 세도 자랑’은 ‘양반 선비 마당’으로 이미 해학성에 초점을 맞춰 교과서에 수록되어 교수·학습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통문화로서의 의의 차원에서 주목한 제 1과장 강신, 제 11과장 헛천곳(거리곳), 제 12과장 당제(堂祭)와 우리나라의 전통 해학문화를 배울 수 있는 제 5과장 양반 선비 세도 자랑을 위주로 하는 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다.

## 2) 해학과 재담으로서의 의의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 선비 마당’에서는 해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왜 하회별신굿탈놀이는 풍자성보다는 왜 해학성이 강한지를 통해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지니는 해학으로서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는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수록된 교과서 중에서 대사가 제일 길게 실린 천재교육 3-1(노민숙 외, 2011)을 선택했다. 교과서들은 대부분 학습자에게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해 대사를 표준어로 싣고 있다.

---

27) 서대석 편, 『구비문학』, 해냄, 1997, 541~555쪽.

28) 조정현 같은 논문.

하회별신굿탈놀이 제 5마당 ‘양반 선비 마당’

선비      여보게, 양반! (이를 신호로 상쇠는 가락을 멈춘다.)  
선비      여보게, 양반! 자네가 감히 내 앞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양반      허허, 무엇이 어제? 그대는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선비      아니, 그러면 그대는 진정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양반      허허, 뭣이 어제? 그러면 자네 지체가 나만 하단 말인가?  
선비      아니 그래, 그대 지체가 나보다 낮단 말인가?  
양반      암, 낮고말고  
선비      그래, 낮긴 뭐가 나아?  
양반      나는 사대부(士大夫)의 자손일세  
선비      아니 뭐라고? 사대부? 나는 팔대부(八大夫)의 자손일세  
양반      아니, 팔대부? 그래, 팔대부는 뭐로?  
선비      팔대부는 사대부의 갑절이지  
양반      뭐가 어제? 어흠, 우리 할아버지는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내셨거든  
선비      아, 문하시중. 그까짓 것! 우리 할아버지는 바로 문상시대(門上侍大)인걸  
양반      아니 뭐, 문상시대? 그건 또 뭐로?  
선비      예헴, 문하보다는 문상이 높고, 시중보다는 시대가 더 크다 이말일세  
양반      허허, 그것참, 별꼴 다 보겠네. 그래, 지체만 높으면 제일인가?  
선비      예헴, 그러면 또 뭐가 있단 말인가?  
양반      학식이 있어야지, 학식이. 나는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다 읽었다네  
선비      뭐 그까짓 사서삼경 가지고. 어흠, 나는 팔서육경(八書六經)을 다 읽었네  
양반      아니, 뭐? 팔서육경? 도대체 팔서는 어디에 있으며, 그래, 대관절 육경은 또 뭔가?  
          (초랭이는 여태까지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듣다가 짹짜게 끼어든다)  
초랭이    헤헤헤, 나도 아는 육경, 그것도 모릅니까? 팔만대장경, 중의 바라경, 봉

사의 안경, 약국의 길경, 여자의 월경, 머슴의 새경 말입니다.

(고수는 육경의 한 소절마다 장단을 쳐 준다. 초랭이는 ‘머슴의 새경’을 더욱 강조하여 자신의 새경에 못마땅함을 보인다)

선비     그래, 이것도 아는 육경을 양반이라 하는 자네가 모른단 말인가?<sup>29)</sup>

7학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듣기’ 영역의 성취기준(4)는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이며 9학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말하기’ 영역 성취기준(4)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해학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재담에 활용한다.’이다. 중학교 국어교육 과정에서는 공통적으로 해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해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 선비 마당’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해학을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으로 정의내리고 있으며<sup>30)</sup>, 전병선(1986)은 해학은 익살스러우면서도 조소가 섞여 있는 말이나 행동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sup>31)</sup> 익살은 ‘남을 웃기려고 일부러 하는 말이나 몸짓’을 뜻하며, 조소(嘲笑)의 ‘嘲’는 ‘비웃다’ ‘조롱하다’의 뜻을 담고 있다. 또한 ‘조롱하다’는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조롱(嘲弄)의 ‘롱(弄)’은 ‘희롱하다’이며, 희롱(戲弄)은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해학과 관련된 어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웃음’이라는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해학에 담긴 웃음은 그냥 웃음이 아니다. 즉 해학에 담긴 웃음은 다소 가벼운 비판성을 담고 있는 웃음이다.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 선비 마당’에서 학습자는 해학을 찾아야 하고 이 해학에 담긴 웃음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29) 노미숙 외, 『중학교 국어 3-1』, 천재교육, 2011.

30) 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31) 전병선, 「익살 해학 야유 풍자」, 중국조선어문, Vol.- No.1986-3, 1986.

‘양반 선비 마당’의 구조를 보면 내내 양반과 선비의 대화가 주를 이루다가 거의 마지막에 가서 초랭이가 대사 한 마디를 던진다.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 선비 마당’은 양반과 선비가 주고받는 대화 그 자체가 자신의 무식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구조이다. 양반이 먼저 “나는 사대부(士大夫)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니 선비가 그럼 “나는 팔대부(八大夫)의 자손이다”라고 답한다. 그리고 나서 또 양반이 먼저 “우리 할아버지는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냈다”고 말하니 선비가 뒤질세라 “우리 할아버지는 문상시대(門上侍大)를 지냈다”라고 답한다. 사대부는 벼슬이나 문벌이 높은 집안의 사람을 일컫는데, 선비 士자를 숫자 四로 바꿔 숫자 四보다 더 높은 숫자 八을 가져다붙임으로써 사대부(士大夫)의 뜻과는 관계없는 팔대부(八大夫)라는 말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 부분에서 웃음이 나오는 것은 팔대부(八大夫)가 말장난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문하시중(門下侍中)이 갖는 뜻과는 무관한 문상시대(門上侍大), 사서삼경(四書三經)이 갖는 뜻과는 무관한 팔서육경(八書六經)도 언어유희에서 비롯된 해학이다. 팔대부(八大夫)나 문상시대(門上侍大), 팔서육경(八書六經)의 공통점은 바로 양반 스스로 자신의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에 가서 양반이 팔서육경(八書六經)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깐 그것도 모르나면서 초랭이는 ‘팔만대장경, 중의 바라경, 봉사의 안경, 약국의 길경, 여자의 월경, 머슴의 새경’이라고 답한다. 초랭이가 답한 육경은 사서삼경(四書三經)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선비나 양반은 알아채지 못한다.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육경으로 비하(卑下)시키는 것은 양반과 선비라는 지배계층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보다는 웃음을 통한 우회적인 공격으로 볼 수 있다. 이 우회적 공격이 웃음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 선비 마당’에 나타난 해학을 네 가지로 요약해 보면 언어유희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士’를 ‘四’로 바꾸어 士大夫 → 八大夫
- ② ‘下’를 ‘上’으로 바꾸고 ‘中’을 ‘上’으로 바꾸어 門下侍中 → 門上侍大
- ③ ‘四’를 ‘八’로, ‘三’을 ‘六’으로 바꾸어 四書三經 → 八書六經
- ④ 四書三經의 뜻과 상관없이 경(經)만 바꾸어 → 팔만대장경, 중의 바라경, 봉사의 안경, 약국의 길경, 여자의 월경, 머슴의 새경

여기에는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양반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한 민중들의 못마땅함의 표출이며, 기존 지배계층의 부조리함에 대한 불만이 내포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러한 양반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양반에 대한 조소(嘲笑)로 민중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다. 언어유희는 민중들이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배 계층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이었고 언어유희가 촉발하는 ‘웃음’은 양반과 민중 간의 팽팽한 긴장감을 풀어주는 윤활유가 된다.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 선비 마당’이 풍자성보다는 해학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하회별신굿탈놀이가 마을굿에 기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회별신굿은 매년 지내는 동제와 다르게 규모가 꽤 큰 곳이다. 그러므로 별신굿을 지내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했고 마을 주민들이 결립(乞粒)을 해서 별신굿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하회 마을의 유지인 유씨 가문이 별신굿의 비용을 대기도 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 마을에 사는 마을공동체가기 때문이다. 하회별신굿은 마을굿이므로 양반이나 양반이 아닌 사람들 모두 마을공동체로서 마을의 안녕이 공동목표이다. 양반과 농민들은 계층은 다르지만 한 배를 탄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우선 마을의 안녕이 우선이지 양반에 대한 거센 저항이 우선이 아닌 것이다. 하회별신굿은 서낭신을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하회마을에 사는 양반이나 농민이 다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지니고 있기에 풍자성보다는 해학성에 초점을 둘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하회별신굿은 굿의 주체가 마을주민들이었다. 하회마을의 양반들은 별신굿이 벌어질 때면 양반탈을 쓴 양반광대가 아무리 하인일지라도 양반탈을 쓴 순간에만 탈의 신성성을 인정해 양반 대접을 해주었다고 한다.<sup>32)</sup> 별신굿을 할 때에는 탈 뒤에 숨어 양반에 대한 조롱(嘲弄)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지만 별신굿이 끝나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하회별신굿탈놀이에서는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양반에 대한 강한 풍자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 선비 마당’을 통해서 해학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으며 풍자성 보다는 왜 해학성에 초점을 두었는지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 선비 마당’이 지니는 교육적 의의는 바로 해학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삶을 배우고자 하는 데 있다. 우리는 전통적인 해학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시대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며, 우리 조상들의 삶을 배우므로써 더 나은 현재를 계획할 수 있기에 전통 문화 속에 담겨진 우리 조상들의 삶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해학문화를 이해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줄 알아야만 국어교육의 최종 목표인 ‘국어능력신장’을 달성하는 길이다. 하회별신굿탈놀이에 드러난 해학문화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가 실생활에서 재담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회별신굿탈놀이가 갖는 해학으로서의 교육적 의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32) 윤친근,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종교성과 민중성」, 하회탈과 하회탈춤의 美學, Vol.8 No.1, 1999.

### 3) 전통문화로서의 의의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통해 우리는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를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현대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sup>33)</sup>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 현대에 있어서 전통을 통해 삶의 공동체의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더욱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sup>34)</sup> 하회별신굿탈놀이는 그 준비과정에서부터 하회별신굿탈놀이가 벌어지는 내내 그리고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마을공동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하회별신굿탈놀이는 마을 공동체 간의 결속력이 이루어낸 공동체 의식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하회마을은 낙동강이 흐르는 지류에 위치해 있어 언제나 홍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자연을 거스르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고자 했던 우리 선인들은 하회별신굿탈놀이라는 전통문화를 만들어 내어 공유해 왔던 것이다.



(안동河回마을 홈페이지 사진 참조)

33) 박갑수 외, 『고등학교 국어 (상)』, (주)지학사, 2010년, 134쪽

34) 채희완, 「탈춤의 창조적 계승」, 『민속학술자료총서 탈춤 8』, 우리마당터, 2003, 8쪽.

하회마을은 낙동강이 마을 주변을 한 바퀴 휘돌아 나간다고 해서 하회(河回)라고 한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지만 본고에서 다시 언급한 이유는 하회마을의 지리적 특징이 하회별신굿탈놀이의 기원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안동하회마을(중요민속자료 제122호)은 풍산 류씨가 600여 년간 대대로 살아온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마을이다.<sup>35)</sup> 부용대 앞을 흐르는 강을 화천(花川)이라고 하는데, 화천(花川)이 범람하면 헛천이 생긴다. 헛천 안쪽에 위치한 류씨 세거지(世居地란 고장에 대대로 살)는 홍수가 나면 헛천이 생겨 섬과 같이 된다.<sup>36)</sup> 이렇게 자연재해에 취약했던 하회마을 주민들은 주술의 힘을 빌려 낙동강의 범람을 막고자 헛천거리굿을 시작한 것이다. 헛천 시발점에는 강신터가 자리잡고 있으며 헛천 하류 끝 지점에는 헛천거리당이 자리잡고 있는데 별신굿을 할 때면, 강신터에서 굿을 시작하여 헛천 하류 끝지점에서 헛천거리굿을 벌였다.<sup>37)</sup> 하회는 농촌마을이므로 홍수나 가뭄 등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지금처럼 제방시설이 잘 갖추지 않았던 시대에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주술의 힘을 빌리는 것이었다. 하회마을 사람들은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연을 정복하거나 거스르는 방법이 아닌 자연을 달래는 것으로써 별신굿<sup>38)</sup>이라는 전통 문화를 만들어 내

35) 안동하회마을 홈페이지 [www.hahoe.or.kr](http://www.hahoe.or.kr) 참조

36) ‘헛천’의 뜻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에도 문의하고 안동하회마을 해설사에게도 문의했지만 해설사조차도 ‘헛천’의 정체와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 헛천은 평상시에는 없는 것이 홍수로 인해 낙동강이 범람하여 잠시 생긴 천(川)으로 의미를 추정해 보았다.

37) 조정현, 같은 논문.

38) 별신굿은 ‘별신’, ‘별신’, ‘별신’, ‘별신제’, ‘서낭굿’, ‘당산굿’, ‘대동굿’, ‘도당굿’, ‘풍어제’ 등으로 불리는데, 황해도 지역에서는 ‘대동굿’ 또는 ‘큰굿’이라고 하고,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도당굿’ 또는 ‘고창굿’이라고 하며, 전라도 지역에서는 ‘별신제’, ‘당제’, ‘당산제’, 강원·충청·영남지역에서는 ‘별신굿’, ‘별신제’, ‘고사’ 등으로 불린다.<sup>1)</sup> 별신굿은 여러 가지 점에서 동제(洞祭)와 구분되는데, 동제(洞祭)가 매년 지내는 것에 비해 별신굿은 3년이나 5년 혹은 10년 터울로 지낸다. 동제(洞祭)가 매년 정월대보름에 마을 서낭신(城隍神)에게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굿이라면, 별신굿은 그 마을의 산주(山主)가 신탁(神託)을 받아 특별히 지내는 ‘특별한 굿’ 혹은 ‘큰 굿’의 의미를 지니는 굿이다. 조정현(2007)에 의하면 별신굿이라는 용어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새마을 운동 ‘미신타파’의 강압으로 풍어제라고 불린 적도 있다고 진술하면서 농촌마을에서 지내는 별신굿과 어촌마을에서 지내는 풍어제는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어 공유해 왔던 것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 문제이다. 개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 앞에서 하회마을 주민들은 별신굿으로 하나가 되어 공동체의 운명을 함께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회별신굿탈놀이에 포함되는 모든 연행들은 마을 주민들의 몫이었다. 다만 마을 주민들에게는 주술적 능력이 없으므로 헛천굿거리를 할 때는 무당을 모셔와 굿을 지냈다. 신탁(神託)을 받은 산주(山主)는 마을 어른들에게 신의(神意)를 알리고 마을 어른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별신굿의 진행절차에 들어간다. 산주(山主)는 부정(不淨)이 없는 목수를 가려서 서낭대와 내림대(굿할 때나 경문을 읽을 때에 무당이 신을 내리게 하는 데 쓰는 소나무나 대나무 가지)를 만들게 하고, 탈을 고르고, 악기(뽕과리, 징, 북 등)를 정비한다. 스무 아흐렛날 마을 주민 대표들이 동사(洞舍)에 모여 광대의 배역을 맡을 인물들을 마을 주민들 중에 부정(不淨)이 없는 사람들로 뽑는다. 하회별신굿은 마을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을 어른들이 모여 회의를 거쳐 거행하는 특별한 굿 혹은 큰굿이다. ‘굿’은 공동체적 유대의식이나 공동참여 동기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sup>39)</sup> 즉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마을 공동체의 일로 받아들여 함께 하고자 했던 공동체의 유대의식이 원천적인 동기로 작용하였기에 공동 참여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회마을에서는 처녀로 죽은 무진생각시신을 위해 혼례를 올려드리고 신방을 차려드린다.<sup>40)</sup> 이렇게 하회마을의 서낭신인 무진생각시신을 위로하고 기

39) 채희완, 「탈춤의 창조적 계승」, 『민속학술자료총서 탈춤 8』, 우리마당터, 2003, 15쪽.

40) “옛날 허도령이라는 靑年이 있었다. 그는 꿈에 마을의 寸護神으로부터 假免製作의 啓示를 받았다. 이튿날 그는 목욕재계하여 집안에 外人의 出入을 막는 禁索을 치고 전심전력으로 가면제작에 몰두했다. 그때 허도령을 몹시 戀慕하는 처녀가 있어서 여러날을 기다렸으나 허도령을 볼 수가 없어 하루는 허도령이 무엇을 하는지 그 모습이나 보고자 窓에 구멍을 뚫고 엿보고 말았다. 禁斷의 戒律을 어긴 것이다. 入神之境이던 허도령은 그 자리에서 피를 吐하고 숨을 거두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들던 <이매> 탈은 턱이 없이 남게 되었다. 그 후 處女도 변민하다가 마침내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處女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城隍神으로 고이 모시고 해마다 祭를 올린다고 한다.”

쁘게 헤드림으로써 하회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풍요와 다산을 기원했다. 다산(多産)은 농촌마을에서 필요한 인력을 얻는 문제와 직결되며 풍요는 마을 공동체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두레’라는 생산노동공동체의 삶 속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는 공동의 생활예술이 되는 것이다.<sup>41)</sup>

하회별신굿탈놀이는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되는데 별신굿에 필요한 경비는 걸립(乞粒동네에 경비를 쓸 일이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패를 짜서 각처로 다니면서 풍물을 치고 재주를 부리며 돈이나 곡식을 구하는 일)을 해서 충당하기도 했지만, 마을 세거(世居한 고장에 대대로 삶) 풍산 류씨가 별신굿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다. 하회마을은 양반이나 농민이나 마을의 안녕과 복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마을공동체였기에 유교사상을 가진 양반이라도 신의(神意)를 받은 별신굿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이렇듯 하회마을 별신굿은 계층에 초월하여 하회마을의 영원한 안녕과 복락을 기원하는 마을굿이었던 것이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날카로운 풍자 보다는 해학에 무게 중심을 두는데 왜냐하면 하회별신굿탈놀이가 마을굿<sup>42)</sup>에 기원하기 때문이며,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주체가 한 마을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하회마을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곳에 위치한다. 이 점은 양반이나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나 똑같은 자연 조건에 처해 있으면서, 홍수라는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일에 있어 계층을 초월하여 마을공동체의 공동 소망이 되는 것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하회별신굿의 궁극적 목적은 홍수를 막고 마을의 복락을 비는 것이기에 지배계층을 향한 날카로운 풍자가 핵심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

---

성병희, 「河回 별신 탈놀이」, 『한국민속학』 12, 민속학회, 1980, 97~98쪽.

41) 채희완 같은 책, 16쪽.

42) “河回洞(물도리洞)엔 山主가 있어,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서낭신과 삼신에게 빌었는데, 특히 서낭당에는 촛불을 밝히고 첫닭이 울 때까지 致誠을 드리다가 내려왔다. 또 매년 정월 보름과 4월 초파일에 서낭당(15세 과부 또는 17세 처녀의 당), 굿세당(許道승이나 安道승의 당?), 삼신당(서낭각시 시어머니의 당)에 洞祭를 지내며, 10년 마다 거행하는 別神굿을 주재했는데, 山主는 꿈에 啓示를 받은 자가 됐다.” 박진태, 「河回別神굿 탈놀이」, 『比較民俗學 6輯』, 1990, 176쪽.

한 하회별신굿탈놀이에서 광대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마을 주민들이었다. 광대역할을 맡은 주민들은 별신굿이 끝나게 되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 양반들과 마주해야 하므로 관계가 불편해질 정도로 비판성이 강한 풍자는 할 수 없었던 것이다.<sup>43)</sup> 탈놀이에서 탈을 쓴 광대가 양반을 공격하기도 하는데, 이때만큼은 양반탈을 쓴 광대가 아무리 하인일지라도 양반 대접을 해주었다는 것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갈등이 한 데 녹아드는 용광로와 같은 별신굿은 신명풀이의 장이 된다.<sup>44)</sup> 개인과 개인 간 그리고 개인과 사회 간의 대립과 반목 대신 화합을 지향하는 공동체의식은 사회 구성원들끼리 유대감을 갖게 함으로써 사회적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

별신굿을 하기 위해서 온 마을 사람들은 총 출동되어 한 마음으로 준비를 한다.<sup>45)</sup>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굿패들은 풍물잡이 복색을 하고 풍물을 치며 집집마다 돌아다닌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본래 별신굿의 일환으로 행해진 놀이로서, 풍물굿에 기원한다. 풍물굿은 무당이 주관하는 굿이 아니라 풍물잡이들이 주관하는 굿이다.<sup>46)</sup> 하회마을 이웃인 소사마을에는 풍물잡이들을 아예 ‘굿패’라고 하고 풍물을 치는 일을 ‘굿친다’라고 한다. 실제로 동제를

43) “1928년에는 큰 광대와 양반광대 및 선비광대들이 금년에는 꼭 양반택 대청에서 놀면서 양반의 애를 먹이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양반택에서 거절하는 통에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선비광대가 대청에 올라가서 양반과 직접 대면하여 수작을 걸고, 풍자적인 사실로서 골려주기 때문에 류씨들이 그런 짓을 하지 않으면 초청하겠다는 조건을 걸어, 이로 말미암아 실행하지 못한 것이다.” 조정현, 같은 논문, 176쪽.

44) 조정현, 같은 논문, 86쪽.

45) “성공적인 별신굿은 부락민들이 모두 함께 神靈들 앞에서 그들의 염원, 희망, 고통, 그리고 행운의 경이적인 순간들을 상상적으로 다시 체험하면서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뿌리깊은 유대관계를 맺도록 한다.” 키스터, 다니엘 A. 『巫俗劇과 不條理劇-原型劇에 관한 比較研究-』,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6, 225쪽, 재인용.

46) “하회별신굿은 풍물굿패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집들이 별신굿을 한다. 자연히 굿청과 같은 고정적인 굿판이나 굿판의 장식이 없다. 서낭대를 앞세우고 계속 이동하면서 집집마다 또는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굿판을 벌인다. 자연히 풍물을 칠 때나 탈놀이를 할 때에도 굿패들의 반주는 서서한다. 이처럼 이동하면서 탈놀이를 하는 것은 풍물굿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우리 탈놀이에 무대를 꾸미는 세트가 없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임재해, 「하회탈놀이의 제의성과 예술성, 그리고 민중적 창조력」, 『안동학연구 제2집』, 9쪽, 23쪽.

올릴 때 굿패들이 굿을 치면서 동제를 올릴 뿐 아니라, 굿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월 초사흘부터 열흘까지 굿을 치며 집집마다 지신밟기를 한다.<sup>47)</sup> 하회별신굿은 규모가 꽤 큰 굿으로, 선달그믐부터 보름까지 16일간 진행을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갔다. 별신굿을 보지 못하면 죽어서 좋은 데를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별신굿을 보기 위해 하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하회별신굿을 구경하러 몰려든 구경꾼들도 걸립을 한 것으로 보아 하회별신굿은 마을굿이지만, 인근마을 주민들과 상인들도 몰려든 축제적 성격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sup>48)</sup> 또한 별신굿을 할 때 하회마을에서만 하지 않고 월애와 광덕, 현회, 가곡동 등 제법 먼 거리의 이웃말까지 가서 굿을 할 정도였다고 한다.<sup>49)</sup>

풍물과 춤이 동반된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예술 오락적 기능을 지닌다.<sup>50)</sup>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벌이는 풍물과 탈놀이는 별신굿의 축제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한다. 별신굿의 연행을 담당하는 광대나 별신굿에 참여한 마을주민들 그리고 구경하러 온 인근 마을주민들과 돈을 벌기 위해 몰려든 장상꾼들 모두에게 별신굿은 축제의 장이 되었던 것이다.<sup>51)</sup>

별신굿의 일환이었던 탈놀이는 시대가 흐르면서 주술적 기능의 쇠퇴와 더불어 독립적인 연행예술로서 발전 성장하기에 이른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굿에서 극으로, 주술성에서 예술성으로 변모한 것이다. 인간의 의식과 사고가 발달함으로써 사회현실을 반영하고자 한 사람들의 욕망이 점차 커지자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종교적 주술적 굿에서 오락적 연극놀이로 변화발전하게 된 것이다.<sup>52)</sup>

47) 林在海, 韓國口碑文學大系, 7-9(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393쪽.

48) 조정현 같은 논문.

49) 박진태, 『탈놀이의 기원과 구조』, 새문사, 1990, 360쪽.

50) 백현순, 「제의적 마을 탈춤의 분석 -제의적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 Vol. 10 No. 4, 2010, 180쪽.

51) 조정현·김원규, 「안동지역 별신굿의 제의성과 축제성」, 2008, 403쪽.

이렇듯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통해 우리 민족은 무엇을 생각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 왔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sup>52)</sup>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주술적인 힘으로 극복하고자 한 의지에서 출발하여 예술로 승화됐으며, 농촌 사회에서 중요한 노동력을 얻고자 하는 바람과 마을 공동체의 안녕과 복락을 기원하는 마을 구성원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성장 발전해 온 전통 문화 예술이다. 또한 생활 터전을 위협하는 자연 재해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도 하회별신굿탈놀이는 대립과 반목 대신 화합을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지닌다. 하회별신굿탈놀이 속에서 우리는 선인들의 공동체의식과 자연과 더불어 평화로운 공존을 꾀하고자 했던 슬기로운 그리고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인들에게 하회별신굿탈놀이는 훌륭한 귀감이 될 수 있는데, 본고는 공동체 문화의 중요성을 부각한 전통문화로서의 의의 차원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52) 백현순, 같은 논문, 180쪽.

53) 최미숙 외, 『국어교육의 이해』, 2008, 사회평론, 321쪽 재인용.

## 2. 가면극의 교과서 수록 양상과 하회별신굿탈놀이의 교육 양상

### 1) 가면극의 교과서 수록 양상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2·3학년 국어교과서와 고등학교 국어(상)·(하) 교과서에 수록된 가면극 수록 현황을 조사해 보았다. 중학교 1학년 23종 국어 교과서 중에서는 천재교육(1-2, 박영목 외), (주)박영사(1-2, 권영민 외), 새롭교육(1-2, 송하준 외)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수록해 놓았다. 중학교 2학년 15종 국어 교과서 중에서는 (주)지학사(2-1, 이용남 외)에서 양주별산대놀이를 수록해 놓았고, (주)지학사(2-2, 이용남 외)에서는 하회탈 사진만 자료로 수록해 놓았으며 (주)미래엔(2-2, 윤여탁 외)에서는 봉산탈춤에 등장하는 양반탈 사진만을 수록해 놓았다. 중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에서는 1·2학년 때보다 많은 가면극을 수록해 놓고 있는데 12종 교과서 중에 천재교육(3-1, 노미숙 외), 해냄교육(3-2, 오세영 외), 비상교육(3-2, 조동길 외), (주)미래엔(3-2, 윤여탁 외) 네 곳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수록해 놓았다. 고등학교 국어(상)·(하) 각각 16종은 주로 봉산탈춤을 수록해 놓았고, 그밖에 하회별신굿탈놀이와 양주별산대놀이가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표1)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2·3학년 국어 교과서 가면극 수록 현황  
중학교 1학년 23종, 중학교 2학년 15종, 중학교 3학년 12종

		출판사	가면극 종류	실린 마당	채록본
(가)	1-1	천재교육, 박영목 외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 선비 마당	
(나)	1-2	새롭교육, 권영민 외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 선비 마당	
(다)	1-2	(주)박영사, 송하준 외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 선비 마당	
(라)	2-1	(주)지학사, 이용남 외	양주별산대놀이	제7과장 샌님춤	김성대
(라-1)	2-2	(주)지학사, 이용남 외	하회별신굿탈놀이	하회탈 사진만 수록	
(마)	2-2	(주)미래엔, 윤여탁 외	봉산탈춤	양반탈 사진만	

				수록	
(바)	3-1	천재교육, 노미숙 외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 선비 마당	
(사)	3-2	해냄에듀, 오세영 외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 선비 마당	
(아)	3-2	비상교육, 조동길 외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 선비 마당	
(자)	3-2	(주)미래엔, 윤여탁 외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 선비 마당	

표2)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 상·하 민속극 수록 현황 각각 16종

	교과서	가면극	실린 마당	채록본
(가)	좋은책신사고 민현식 외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춤	김진옥·민천식 구술 이두현 채록
(나)	천재교육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춤	
(다)	비상교육 한철우 외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춤	김진옥·민천식 구술 이두현 채록
(라)	(주)지학사 방민호 외	하회별신굿 탈놀이 고성오광대 놀이	제7과장 양반 선비 마당 '교실밖체험'으로 간략 소개	이창희 구술, 성병희·김택규 채록
(마)	창비 문영진 외	봉산탈춤	미알할미와 영감 마당	임석재 채록
(바)	교학사 조남현 외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춤 제7과장 미알춤	이창희 구술, 성병희·김택규 채록
(사)	(주)도서출판 디딤돌, 이삼형 외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춤	김진옥·민천식 구술 이두현 채록
(아)	해냄에듀 오세영 외	봉산탈춤	제7과장 미알춤	이두현 채록, 최장주 정리
(자)	(주)금성출판사 윤희원 외	봉산탈춤 양주 별산대 놀이	제6과장 양반춤 제7과장1경 의막(依慕) 사령 놀이	양주 별산대 놀 이 공연 대본
(차)	두산동아 우한용 외	고성 오광대 놀이		

			봉산탈춤		
(가)	하	(주)도서출판 디딤돌 이상형 외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춤 -학습활동	이두현 채록
(타)		(주)미래엔컬처그룹 윤여탁 외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춤	김진옥·민천식 구술 이두현 채록
(파)		더 텍스트 김병권 외	봉산탈춤	제7과장 미알춤	이두현 채록
(하)		(주)유웨이 중앙교육 박호영 외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춤	김진옥·민천식 구술 이두현 채록
(가) -1		천재교육 김종철 외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춤 -대단원 학습활동	김진옥·민천식 구술 이두현 채록
(나) -2		천재교육 김대행 외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춤	김진옥·민천식 구술 이두현 채록
(다) -1		천재교육 박영목 외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춤 -적용학습	

우리나라의 가면극에는 양주별산대놀이, 꼭두각시놀음, 통영오광대놀이, 고성오광대놀이, 강릉관노가면극,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동래야유, 수영야유, 해서탈춤, 송파산대놀이 등이 있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주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제재로 수록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는 봉산탈춤을 주로 제재로 수록하고 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가면극 학습에 있어서 탈놀이에 주목하여 탈춤을 배운다거나 탈을 제작하는 학습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학교 과정에서는 주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통해 해학과 재담을 배우는데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봉산탈춤을 주로 배우는데 다만 중학교 과정과 다른 점은 가면극이라는 장르적 특성에 주목하여 공연예술 차원에서 봉산탈춤을 배운다는 데 있다. 선택과목인 문학 교과서에는 좀더 다양하게 가면극을 제재로 수록하고 있지만 문학을 선택한 학생들만 다

양하게 가면극을 배우게 되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초·중·고 12년을 공부하고도 가면극하면 하회별신굿탈놀이나 봉산탈춤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 북청사자놀음 밖에 모르는 되는 것이 현실이다.

중학교 1학년인 경우 교과서가 23종이지만 세 곳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수록해 놓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우리나라 가면극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다. 중학교 1학년이 저학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면극 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교과서에 반영된 것일 수 있으나 중학교 1학년 눈높이에 맞춰 가면극을 교육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중학교 과정에서는 가면극의 학습 분량이 매우 적음이 문제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가면극 종류에 대한 편중이 심한 것 또한 문제이다. 고등학교 국어 (상)·(하) 대부분에서는 봉산탈춤을 수록해 놓고 있다. 물론 선택과목 문학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가면극을 수록해 놓고 있지만, 문학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봉산탈춤만 주로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첫 단계에서 봉산탈춤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은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가면극에 대한 시야를 좁히고 우리나라 가면극에 대한 다양한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중학교 과정에서도 다양하게 가면극을 배울 수 있도록 중학교 눈높이에 맞춘 가면극에 대한 교육방안과 교재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고등학교 국어 (상)·(하) 교과서에서는 가면극의 어느 한 종류에 편중됨이 없이 다양하게 가면극이 수록되어야 하겠다.

## 2) 하회별신굿탈놀이의 교육 향상

우리나라 가면극의 가장 특징은 정교한 무대장치나,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 없이도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 그 곳이 무대가 되어 탈 하나만 쓰기도 얼마든지 공연을 펼칠 수 있다는 데 있다. 장면의 전환과 극중 인물의 등장 및 퇴장이 손짓 하나로도 가능하고 관중들도 극중 인물들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극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바로 우리나라 가면극의 큰 장점이자 특징이다. 하지만 현 교과에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해학과 재담에 국한시켜 총체적으로 학습하는 데 있어 소홀한 면이 있다.

지금부터는 7학년에서 9학년에 이르기까지 하회별신굿탈놀이가 교과서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교과서 분석을 통해 하회별신굿탈놀이 교육 향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영역 차원에서 살펴보았다.<sup>54)</sup>

54)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 해설서

7학년	<p><b>【7-듣-(4)】</b>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b>【내용 요소의 예】</b>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기</p>
8학년	<p><b>【8-읽-(5)】</b> 다양한 풍자물의 매체 특성과 그 효과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b>【내용 요소의 예】</b>            ○매체 특성과 풍자물의 표현 방식 이해하기            ○생산자와 수용자가 공유하는 사회적 통념 파악하기            ○풍자물에 담긴 현실 비판의 내용과 비판 방식에 대해 평가하기            ○풍자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토의하기</p>
9학년	<p><b>【9-말-(4)】</b>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해학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재담에 활용한다.  <b>【내용 요소의 예】</b>            ○해학의 구조와 표현 특징 이해하기            ○우리나라 해학 문화의 전통 이해하기            ○전통 해학을 재담에 활용하기</p>
10학년	<p><b>【10-듣-(4)】</b>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 특성을 이해한다.  <b>【내용 요소의 예】</b>            ○연행의 언어적 관습과 표현 특성 이해하기            ○청중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한 표현 이해하기</p>

교과서에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공통적으로 화법 영역에 배치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은 듣기 영역, 중학교 2학년은 읽기 영역, 중학교 3학년은 말하기 영역,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시 듣기 영역에 배치하고 있다. 이는 화법 영역 안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해학과 재담에 초점을 맞추어 교수·학습하고자 한 것이다.

해학과 재담에 초점을 두는 교수·학습은 화법 영역에서 해학과 재담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듣기·말하기 교육이므로 학습자들에게 하회별신굿탈놀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하회별신굿탈놀이에 대한 단편적 지식만을 습득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가면극을 제대로 접하게 되는 학습자들에게 가면극에 대한 흥미를 제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확립화된 지식을 심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가면극을 좀 더 폭넓고 다양하게 교수·학습하기 위해서는 문학 영역 차원에서도 배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대단원 구성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가)교과서55)는 ‘5.선인들의 삶과 언어’, (나)교과서56)는 ‘1.우리 문학과 웃음’, (다)교과서57)는 ‘1.언어에 담긴 우리문화’, (라)교과서58)는 ‘1.고전의 향기’, (마)교과서59)는 ‘1.고전의 아름다움과 가치’, (바)교과서60)는 ‘05.전통을 찾아서’라는 대단원명 하에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배치하고 있다. (나)교과서 대단원명 ‘1.우리의 문학과 웃음’에서 ‘웃음’은 해학과 재담을 연상시키게 하며, (다)교과서 대단원명도 ‘1.언어에 담긴 우리 문화’에서 ‘언어’를 통해 해학과 재담을 떠올릴 수 있다.

○공연 예술의 언어 문화적 가치 이해하기
------------------------

- 55) 박영목 외, 『중학교 국어 1-2』, 천재교육, 2009. (가)로 대체시키고자 한다.  
 56) 노미숙 외, 『중학교 국어 3-1』, 천재교육, 2011. (나)로 대체시키고자 한다.  
 57) 오세영 외, 『중학교 국어 3-2』, 해냄에듀, 2011. (다)로 대체시키고자 한다.  
 58) 조동길 외, 『중학교 국어 3-2』, 비상교육, 2011. (라)로 대체시키고자 한다.  
 59) 윤여탁 외, 『중학교 국어 3-2』, (주)미래엔, 2011. (마)로 대체시키고자 한다.  
 60) 박갑수, 『고등학교 국어(상)』, (주)지학사, 2010. (바)로 대체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아)교과서와 (자)교과서 대단원명에서는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 해학과 재담을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이유는 대단원 명 ‘1.고전의 향기’와 ‘1.고전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다른 교과서들 보다 다소 제목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해학에 맞춰 교수·학습하기에는 ‘1.우리의 문학과 웃음’이나 ‘1.언어에 담긴 우리 문화’가 적합할지 모르나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전통문화로서의 의의 차원에서 교수·학습하기에는 ‘1.고전의 향기’나 ‘1.고전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대단원명으로 더 적합하다. (태)교과서는 ‘05.전통을 찾아서’라는 대단원명 하에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배치하고 있다. 전통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훨씬 더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전통문화로서의 의의 차원에서 교수·학습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 즉 고등학교에 올라와서야 비로소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해학과 재담에서 벗어나 전통문화로서의 의의 차원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 중학교 단계에서도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문학 영역에 배치하여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 방안이 연구된다면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전통문화로서의 의의 차원에서 교수·학습 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습목표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통해 달성해야할 학습목표는 학년별로 다르다. 중학교 1학년은 교육과정 ‘성취기준(4)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를 근거로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학습목표를 세웠다.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는 ‘해학’이라는 말 대신 ‘재미있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야 해학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다. 중학교 1학년에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재담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중학교 3학년 교과서 네 곳 모두 교육과정 ‘성취기준(4)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해학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재담에 활용한다.’에 근거해서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전통적인 해학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재담에 활용한다.’를 학습목표로 세우고 있다. 중학교 1학년에서는 재담을 통해 말

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였다면, 중학교 3학년에서는 재담을 활용하는 단계로 나아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학교 과정에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가 해학과 재담 차원에서 교수·학습되고 있으므로 전통문화로서의 의의 차원에서 교수·학습할 수 여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고등학교 (태)교과서는 교육과정 ‘성취기준(4)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 특성을 이해한다.’를 근거로 해서 공연 예술의 소통방식과 표현 특성을 ‘공연 예술의 특징’으로 압축하여 ‘공연 예술의 특징을 알고 언어 문화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와서야 해학과 재담에서 벗어나 가면극으로서의 공연 예술 차원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배우는 것이다.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 특성이 무엇인지는 하회별신굿탈놀이가 극으로서 지니는 가치를 학습함으로써 알 수 있고, 언어 문화적 가치는 하회별신굿탈놀이에 담긴 풍자와 해학을 학습함으로써 알 수가 있다.

넷째, 교과서에서 구성하고 있는 학습활동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가)교과서는 단원의 마무리를 끝내고 선택학습에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배치하고 있다. 선택학습은 학습자가 단원을 끝내고 자신에게 맞는 과제를 선택해서 추가로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활동이다. 선택과제 2에 제시된 과제는 ‘다음 탈놀이 대본에는 양반과 선비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내용의 재담이 담겨 있습니다. 잘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이다. 이와 관련한 첫 번째 물음은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사회의 모습을 적어 봅시다.’이고 두 번째 물음은 ‘이 글에서 재담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고, 그 재담이 재미있게 느껴지는 이유를 적어 봅시다.’이다.

첫 번째 물음은 ‘성취기준(3)역사적 상황이 문학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한다.’에 근거한 활동이다. 예시 답안으로 주어진 다음 두 문장 ‘신분 사회이다.’와 ‘양반 계층은 사서삼경을 공부하였다.’는 하회별신굿탈놀이에 담

긴 해학성 찾기와 관련된 활동이며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물음에 대한 예시 답안도 해학과 관련된 재담 찾기 활동이다. 결국 첫 번째 물음이나 두 번째 물음에 근거가 되는 성취기준(3)은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지니고 있는 전통문화로서의 의의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성취기준(4)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또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해학과 관련된 재담에 초점을 둔 활동으로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전통문화로서의 의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한 활동이다.

(배)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학습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표1) (배)중학교 국어 3-1, 천재교육, 학습활동

㉠	학습 활동	이 단원에서는 판소리, 탈놀이 등에 사용된 재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해학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담을 만들어 보자.
㉡		해학 문화의 전통 이해하기
㉢	1	‘하회 별신굿 탈놀이’를 보고 해학 문화의 전통에 대해 생각해 보자.
㉣	①	재담에서 양반, 선비, 초랭이가 하는 역할을 각각 정리해 보자.
㉤	②	이 재담이 담긴 탈놀이를 관람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통쾌하게 웃었을지 생각해 보자.
㉥	③	②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해학 문화가 현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자.
㉦	④	우리 주변에서 해학 문화의 전통이 드러나는 사례를 찾아보자.
㉧	⑤	두 친구의 대화에 활용된 해학 문화의 전통을 살펴보자.
㉨	(1)	재치가 느껴지도록 지은이의 마지막 말을 완성해 보자.
	(2)	현경이가 지은이에게 재미있는 말을 건네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

㉠에서 언급한 ‘해학 문화 이해하기’나 ‘재담 만들기’도 중학교 1학년에서 추구하는 성취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좀 더 깊이 있게 해학을 배우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을 뿐이다. 여전히 학습활동이 해학으로 제한되어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 모두 하회별신굿탈놀이 중에서도 ‘양반 선비 마당’만 보고도 할 수 있는 활동이다. 가면극인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장르 특성상 무엇보다도 공연이 주는 현장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교과서가 구성하고 있는 학습활동은 주로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대사에 나타난 해학적 찾기에만 주목하고 있으므로 극으로서의 장르적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활동이다.

(사)교과서의 학습활동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2) (사)중학교 국어 3-2, 해냄에듀, 학습활동

㉠		다음은 ‘하회 별신굿 탈놀이’의 한 장면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활동을 해 보자.
㉡	1	이 장면의 내용과 표현에 관한 다음의 활동을 해 보자.
㉢	(1)	양반이 자신의 지체를 드러내려고 사용한 말에 대해 선비는 어떤 말로 대응하고 있는지 적어 보자. 그리고 선비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2)	위의 (1)을 바탕으로, 이 대화가 웃음을 자아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2	친구와 배역을 나누어, 이 장면을 공연해 보자.
㉥	(1)	양반과 선비는 어떤 성격을 지닌 인물인지 말해 보자.
㉦	(2)	옆 친구와 ‘선비, 양반’으로 배역을 나누어 보자.
㉧	(3)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에 유의하여 친구와 함께 이 장면을 공연해 보자.
㉨	(4)	위의 (3)에서 한 공연을 다음 항목에 따라 평가해 보자.
㉩	3	이 장면에 나타난 해학적 표현을 참고하여, 다음 상황의 빈칸에 들어갈 재미있는 말을 적어 보자.

(사)교과서가 ㉡교과서와 다른 점은 (사)교과서가 어느 정도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장르적 특성을 감안하여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고 ㉣는 여전히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해학에 제한하여 제시된 활동이지만 ㉤~㉨는 장

르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연을 해 볼 것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경험할 수 있게 한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된다. 다만, 공연이 대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가면극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폭넓게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아)교과서의 학습활동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3) (아)중학교 국어 3-2, 비상교육, 학습활동

㉗	창의 선택1	다음은 우리나라 전통 민속극인 ‘하회 별신굿 탈놀이’ 제5과장의 일부분이다. 이 작품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를 찾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뒷부분을 꾸며 보자.
---	--------	--

(아)교과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선택 학습에 배치하고 있다. 선택 학습은 ‘자기 점검’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게 꾸며 놓은 활동이다. ‘전통 해학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재담에 활동하자’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추가로 수록해 놓은 것이다.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 선비 마당’ 대본만 읽고 해학성을 찾고 그것을 통해 주어진 대본 뒷부분을 꾸며 넣는 것이 과연 창의 선택학습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활동 역시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장르적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활동이다.

(자)교과서의 학습활동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4) (자)중학교 국어 3-2, (주)미래엔, 학습활동

㉘	생활체험활동	탈춤 공연을 보고 나서
㉙	대단원 마무리하기	5.우리나라 전통 해학을 재구성하여 재담에 활용하여 말할 수 있는가? 탈놀이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내용을 조금 바꿔서 친구

		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더니 반응이 좋았어.
--	--	------------------------

(재)교과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생활체험활동에 배치하고 있다. 생활체험 활동은 학습한 내용들이 나의 생활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생활 속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함께할 수 있는 지를 활동으로 제시한 것이다. 생활체험활동에서 알 수 있듯이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을 직접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한 활동이며 교과서에 주어진 대본을 읽고 그 속에서 해학성을 찾는 활동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활동이다. 주어진 대본을 읽는 것만으로는 탈을 쓴 등장인물의 살아있는 몸짓에서 나오는 웃음을 찾기는 힘들다. 또한 하회별신굿탈놀이의 해학성은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과 관중들과의 호흡에서도 웃음을 요소를 찾을 수 있기에 교과서에 제시된 대본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재)교과서는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직접 경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르적 특성을 잘 살린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나 해학성에만 주목한 활동이다.

(라)교과서의 학습활동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4) (라)고등학교 국어 (상), 지학사, 학습활동

㉠	1	이 작품을 공연할 때 연기자들이 인물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분장과 행동을 말해 보자.
㉡	2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 선비 마당’ 공연을 보고, 등장인물의 대사에 주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	(1)	‘초랭이’와 ‘양반·선비’가 사용하는 어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2)	‘초랭이’가 자신의 입장에서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대목은 어디인가?
㉤	(3)	‘초랭이’가 관객의 반응을 기대하며 대사를 하는 대목은 어디인가?
㉥	(4)	현장 상황에 따라 대사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	3	이 공연에서 양반 계층에 저항하는 평민들의 언어 사용 전략에 대

		해 생각해 보자.
㉠	(1)	‘양반’과 ‘선비’ 사이의 대화를 보면서 관객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말해 보자.
㉡	(2)	‘양반’과 ‘선비’의 권위가 붕괴되는 극적 반전이 나타난 대목은 어디인가?
㉢	(3)	‘초랭이’가 ‘양반’과 ‘선비’를 비판할 때 힘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4	이 공연에 나타난 여러 공연 요소에 대해 알아보자.
㉤	(1)	탈놀이 공연장은 무대극의 공간과 어떻게 다른가?
㉥	(2)	이 작품을 세 부분으로 나눌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공연 요소는 무엇인가?
㉦	(3)	실제 공연이 대본과 다르게 이루어진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	(4)	이 작품에서 웃음을 통한 현실 풍자에 기여하는 공연 요소들을 말해 보자.

(라)교과서 학습활동의 특징은 가면극이라는 장르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학습활동들로 구성했다는 점이다. 특히 ㉠~㉣-1까지는 동영상 시청 후 하도록 구성된 학습활동이다. ㉡의 분장, ㉢와 ㉠의 관객의 반응, ㉢의 현장 상황에 따른 대사, ㉤의 공연장, ㉥의 공연 요소, ㉦의 실제공연과 대본과의 차이점 등은 모두 가면극의 장르적 특성과 관련한 학습활동들이다. 무엇보다도 읽기 자료로 주어진 대본을 읽고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것 보다는 공연 시청을 하고 나서 수행하는 활동이 공연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등장인물들의 분장이나 관객들의 반응 그리고 공연장 등을 알아보는 학습활동들은 극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잘 살린 학습활동이 된다. 하지만 하회별신굿탈놀이가 마을 공동체 간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것과 관련하여 전통문화로서의 의의 차원에서의 접근이 미약하다.

위에서 언급한 교과서들 모두 공통적으로 해학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다만, 극이라는 장르적 특성이 좀 더 부각되었다는 점이 조금씩 다를 뿐

이다. 하회별신굿탈놀이에서 탈놀이는 하회별신굿의 일환으로 연희된 놀이이며 마을공동체 간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 공동체 문화라는 점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습자들이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극이라는 장르적 특성과 해학성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회별신굿탈놀이의 형성 배경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공동체 문화의 중요성 또한 전통문화로서의 의의 차원에서 교육되어야 하며 교과서 학습활동에도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 구성될 필요가 있다.

### Ⅲ. 하회별신굿탈놀이의 교수 학습 방안

#### 1. 직접 교수법에 따른 하회별신굿탈놀이 교수·학습 지도안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3-1(노미숙 외, 천재교육) 교과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말하기 영역에 배치하여 ‘성취기준(4)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해학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재담에 활용한다.’에 근거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해학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재담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세우고 단원을 구성하였다. 본고는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공동체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구성한 교수·학습 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표) 직접 교수법 적용 교수·학습 지도안

일시	○. ○. ○		대상/ 학기	중학교 3학년 1학기	
단원명	대단원	1. 우리 문학과 웃음			
	소단원	(3) 웃음을 자아내는 말하기 [말하기]			
교재범위	P. 56~57		차시	3차시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전 작품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한다.</li> <li>·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지니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공동체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다.</li> <li>·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해학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재담에 활용할 수 있다.</li> </ul>				
학습형태	강의법		학습자료	교과서, 유인물, PPT	
학습 단계	학습 요소	교수-학습활동			교수 매체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	수업	▶ 학생들의 수업 준비 상태를	▶ 자리에 착석하고, 교	5	유

입	분위기 조성 · 유인물 배부	점검하고, 수업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수업 분위기 환기, 착석 지도, 교과서 꺼내서 펴 놓기 ▶ 유인물을 배부하고 펼기 안내 및 학습 방법을 설명한다.	사에게 집중한다.  ▶ 교사의 지시에 따라 유인물을 배부 받는다.	분	인물 · P P T
	학습목표 제시	▶ 소단원의 제목인 하회별신굿탈놀이와 오늘의 학습목표를 소개한다. ▶ ‘하회별신굿탈놀이’와 관련된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한다.	▶ 다 같이 교과서 펴고 새로운 단원의 제목을 보며 앞으로 배울 내용을 짐작해 본다. ▶ 교사의 설명을 잘 듣고 유인물을 작성할 준비를 한다.	5 분	
전 개	강의 설명식	▶하회별신굿탈놀이 -가면극의 종류 알아보기 -가면극에 포함된 풍물놀이 알아보기 -하회별신굿은 어떻게 해서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하회별신굿탈놀이 성격 알아보기 -하회별신굿탈놀이 의의 알아보기 -하회별신굿탈놀이 마당 구성 알아보기 -하회별신굿탈놀이에 등장하는 탈 종류 알아보기 -하회별신굿탈놀이에서의 탈놀이 기능과 목적 알아보기 ▶하회별신굿탈놀이 마당 중 ‘양반 선비 마당’ 내용 학습 -‘양반 선비 마당’을 동영상으로 시청하기 -‘양반 선비 마당’이 지니는 해학성 이해하기	-화면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 하회마을의 위치를 통해 하회마을의 지리적 특징을 이해한다. -하회별신굿이 홍수라는 자연재해를 주술적인 힘으로 극복하고자 했음을 이해한다. -하회별신굿탈놀이에 담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를 이해한다.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전체 12과장으로 되어 있음을 이해한다. -화면에 제시된 탈 사진을 보고 유인물에 탈 이름과 특징을 간단히 적는다. ▶동영상을 시청한다. -양반 선비 마당을 통해 해학성 이해한다.	30 분	P P T · 유 인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회별신굿탈놀이 핵심 정리</li> <li>▶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회별신굿탈놀이가 지니는 극적인 요소를 이해한다.</li> <li>▶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질문한다.</li> </ul>		
정리	차시에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제시</li> <li>-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양반 선비 마당’ 이외에 다른 마당도 시청한 후 간단한 소감문을 작성해 온다.</li> <li>▶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다.</li> <li>-교과서에 본문에 수록된 ‘양반 선비 마당’을 배운 후 학습활동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다.</li> <li>▶마무리 인사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를 확인한다.</li> <li>▶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인식하고 본 수업 내용과의 연관성을 이해한다.</li> <li>▶인사를 한다.</li> </ul>	5 분	유 인 물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위한 교수·학습 지도안은 이해하기와 파악하기로 구성되었다. 이해하기 단계는 기본 과정으로 하회별신굿탈놀이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학습하는 단계이며 파악하기 단계는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다시 한 번 다지는 단계이다.

이해하기 단계에서 마련한 하회별신굿탈놀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다음과 같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어떻게 해서 왜 시작하게 되었나?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에서 12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으며, ‘하회(河回)’는 강물이 마을 주변을 휘돌아 간다는 뜻이다.



안동하회 마을은 낙동강이 마을 주변을 휘돌아 간다고 해서 하회(河回)라고 한다. 하회마을은 늘 홍수의 위험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 하회마을사람들은 홍수라는 자연재해로부터 자신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 굿을 벌였다. 그 밖에 마을의 풍요와 다산을 빌기 위해 굿을 벌였는데 이 굿을 별신굿이라 한다.

하회별신굿탈놀이에서 ‘탈놀이’는 별신굿에 포함된 놀이이다. ‘별신굿’이란 특별한 날에 행하는 ‘큰굿’ 혹은 ‘특별한 굿’을 의미한다. 옛날에는 각 마을마다 모시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서낭신(城隍神)이라고 한다. 서낭신은 그 마을의 풍요를 가져다주고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호신이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마을 주민들의 공동의 힘으로 홍수라는 자연 재해를 막기 위해 별신굿을 해왔던 것이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전 과정에 걸쳐 마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하회별신굿탈놀이는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및 공동 참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축제적 성격을 지닌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구경꾼이나 장사꾼들까지 몰려들 정도로 규모가 꽤 큰

별신굿이었다. 마을주민들 뿐만 아니라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통해 신명나게 노는 장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하회별신굿탈놀이 마당 구성

제 1과장 강신	강신은 별신굿을 하기위해 신내림을 하는 과정이다. 강신(降神)과정
제 11과장 헛천굿 (거리굿)	별신 행사의 최종일 음력 정월 15일 마을 앞길에서 제물을 차려 놓고 모든 귀신들이 하회 동네에 침범하지 못하게 굿을 올린다.
제 12과장 당제	별신굿의 기간 동안 함께 즐겼던 신을 서낭당에 다시 모시는 의례이다. 광대들은 꽃병거지를 벗어 삼신당에 걸어 두고 약 15일 간이나 가볼 수 없었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송신(送神)과정

-하회별신굿탈놀이 제 5과장 ‘양반 선비 마당’에 등장하는 탈



-하회별신굿탈놀이에서 ‘탈놀이’의 기능과 목적

하회별신굿에 포함되어 연희되었던 탈놀이는 마을의 수호신인 서낭신을 기쁘게 해드리기도 했으며 마을 주민들도 함께 즐겼던 놀이였다. 탈놀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되었고, 탈놀이에 함께 연주되는 풍물도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담당했다.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 선비 마당' 동영상 시청

가면극으로서 지니는 요소인 탈분장이나 춤사위, 악기 연주, 공연장소, 관객들의 반응 및 배우들의 대사나 행동에 주목하여 주의 깊게 살펴본다.

파악하기 단계에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 핵심정리와 어휘풀이를 마련하여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하회별신굿탈놀이의 특징

갈래	가면극
성격	해학적, 공동체 지향적
무대 장치 및 소품	시간과 장소, 장면 전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해진 무대장치 없이 공연이 펼쳐지는 곳이 곧 무대 장소이다. 탈 하나만 가지고도 공연을 펼칠 수 있다.
인물	피지배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인 초랭이, 지배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인 양반과 선비이다. 양반과 선비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인물들로 스스로 무식함을 드러내는 회화화된 인물이다. 초랭이는 양반과 선비를 조롱하는 인물이다.
대사	틀에 정해진 대사 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등장 인물이 바꿀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닌다.
극 형식	관객들은 언제든지 등장인물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무대가 개방된 열린 구조로서 현장성이 두드러진 특징을 지닌다.

-어휘풀이

지체	어떤 집안이나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신분이나 지위
사대부	(士大夫) ≒ 양반. 벼슬이 높은 집안의 사람
갑절	≒ 배(倍)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
문하시중	조선 전기에, 문하부의 정일품 으뜸 벼슬. 좌우 두 사람을 두었다.

문하부	나라의 모든 정사(정치)를 맡아보던 중앙 최고의 의결(의논하여 결정) 기관.
정일품	조선 시대 첫째 등급
학식	배워서 얻은 지식 혹은 학문을 쌓음
사서삼경	사서와 삼경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곧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의 네 경전과 《시경》, 《서경》, 《주역》의 세 경서를 이른다.
대관절	(大關節) 여러 말 할 것 없이 요점만 말하건대
팔만대장경	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만든 불교 경전
길경	도라지
새경	머슴이 주인에게서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
풍요	흠뻑 많아서 넉넉함
다산	아이 또는 새끼를 많이 낳음

이 학습 지도안은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전통문화로서의 의의 차원에서 조명한 교수·학습 지도안이다. 무엇보다도 하회마을이 지니는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홍수라는 자연재해를 극복하고자 했던 목적이 반영된 하회별신굿의 특성을 이해하고 하회별신굿탈놀이 전반에 걸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 반응 중심 학습 모형에 따른 하회별신굿탈놀이 교수·학습 지도안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은 학습자 개개인의 반응을 최대한 존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학습자의 역동적인 참여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교수·학습 모형이다.<sup>61)</sup>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 교수-학습은 학습자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문학을 익히고 향유하는 제반 활동

61) 최미숙 외,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2008, 98쪽.

을 유도해 내도록 하는 유형이다. 무엇보다 학습자의 개별 체험을 중시해야 한다.<sup>62)</sup> 눈으로 하회별신굿탈놀이의 대본을 읽는 수업이나 동영상을 통해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배우는 수업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학습자들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참여에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하회별신굿탈놀이는 학습자들이 직접 몸으로 표현해 봄으로써 가면극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회별신굿탈놀이 본 수업이 마무리 되면 하회별신굿탈놀이 핵심 장면 세 가지를 선택해 동작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다. 교사는 모듬별로 표현하고자 하는 장면을 미리 선택해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 동작으로 표현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인지시켜 준다.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동작으로 표현하기의 핵심은 동작이 지니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데 있다. 수행자들이 스스로 동작이 지니는 의미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수행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동작의 의미를 잘 전달받을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수업 마지막 부분에서 ‘동작으로 하회별신굿탈놀이 표현하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짚어줌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수업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의 수행 준비 과정과 수행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수행 후 평가를 해주어야 한다. 학습자들도 다른 모듬이 수행하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평가를 해주고 모듬별로 수행 과정에 대한 평가를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수업에 대한 목적과 의의를 되새긴다.

---

62)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387쪽.

표2) 동작으로 하회별신굿탈놀이 핵심 내용 표현하기<sup>63)</sup>

**【동작으로 하회별신굿탈놀이 핵심 내용 표현하기】**

■ 활동 목표

하회별신굿탈놀이의 핵심 내용을 정지 동작으로 직접 표현해 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의미를 내면화한다.

■ 활동 형태

9명이 한 모듬(동작-양반, 선비, 초랭이) 세 명씩 각 세 장면 연출

■ 활동 방법

-9명이 한 모듬을 이룬다.

-한 모듬 안에서 3명씩 짝을 지어 하회별신굿탈놀이 세 장면을 각각 선택한다.

-한 장 면 안에 양반, 선비, 초랭이 역할을 정한다.

-기본 대사는 있되 현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동작을 연습한다.

-한 모듬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분으로 각 장면 당 5분씩 할애된다.

-각 장면 당 세 명이 연기를 할 때 나머지 6명은 관객의 역할을 한다.

-나머지 모듬들은 이 과정을 관객의 입장이 되어 지켜보면서 평가지를 작성한다.

(물론 극에 관객이 되어 유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관람 포인트

-각 모듬이 돌아가면서 똑같은 공연을 펼치더라도 모듬들 마다 공연에 있어 어떤 점이 서로 다른 지에 중점을 두어 관찰을 한다.

■ 활동 후 평가 및 소감

-관람을 하는 학생들은 다른 모듬이 수행하는 활동을 보고 평가한다.

※평가지는 선생님께서 사전에 작성한 평가지에 기록한다.

-모든 모듬의 활동이 끝난 후 이러한 활동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했는지

자유롭게 감상문 형식으로 작성해 본다.

■ 포트폴리오 작성

-모둠은 그동안 준비한 과정을 날짜별로 포트폴리오에 작성한다. 배역을 정한 과정, 연습한 과정을 사진 첨부와 더불어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긴다.

■ 주의 사항

기본 대사는 있지만 공연의 현장성과 가변성에 초점을 두어 배우들의 대사나 연기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관찰한다.

■ 결과 예시

-선생님은 각 모둠의 활동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과 각 모둠의 평가를 종합하여 이 활동의 의미를 짚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사진1> 선비와 양반이 누가 더 신분이 높으냐를 두고 따지는 장면

<사진2> 선비와 양반이 벼슬을 놓고 누가 더 높으냐를 따지는 장면

<사진3> 선비와 양반이 누가 더 학식이 높으냐를 두고 따지는 장면



이 활동의 목표는 교과서에 제시된 하회별신굿탈놀이 핵심 장면을 학습자들이 직접 표현해 봄으로써 가면극이라는 장르를 체험해 보게 하는 것이다.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 선비 마당’ 중에서 핵심 장면 세 가지를 선택해서

63) [www.kice.ce.kr/](http://www.kice.ce.kr/) 교수학습개발센터 국어자료실 참조.

각 모듬은 수행해야 한다. 총 9명이 한 모듬을 이루는 데 각 장면마다 약 5분간의 시간을 할애한다. 하나의 장면을 세 명이 수행할 때 나머지 6명은 관객의 역할을 한다. 각 장면에 해당하는 대사를 숙지를 하고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대사와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다. 연기를 담당하는 수행자와 관객을 담당하는 수행자는 자유롭게 공연을 펼친다. 이 과정을 나머지 모듬들은 관찰을 한다. 이렇게 해서 3~4개의 모듬들은 돌아가면서 공연자, 관람객, 관찰자 역할을 모두 해 볼 수 있다. 수행자들은 공연자였을 때, 관람객이었을 때, 다른 모듬이 공연을 펼치는 것을 관찰했을 때의 느낌을 고스란히 직접 체험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습자들은 우리나라 가면극을 배우게 된다. 가면극으로서의 의의 차원에서 가면극을 교수·학습하기 위해서는 가면극의 음악적인 측면, 연극적인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위와 같은 지도안은 음악적인 측면이 반영되지 못했고 연극적인 측면도 제한적으로 반영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면극으로서 의의 차원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교수·학습하기 위해 가면극의 특징 중 현장성과 가변성을 최대한 반영한 지도안이 되도록 노력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양반 선비 마당’ 핵심 장면 세 가지를 선택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수행을 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IV. 결론

가면극 하면 누구나 하회별신굿탈놀이나 봉산탈춤을 흔히 떠올리고 나서는 그밖에 가면극들에 대해서는 생소해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주로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제재로 수록되어 배우게 된 상황과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는 주로 봉산탈춤이 제재로 수록되어 배우게 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자연히 국어 시간에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가면극 위주로 배울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나라 가면극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것도 문제이기도 하다. 본고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가면극 수록 현황과 교육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하회별신굿탈놀이에 주목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발행된 7학년~10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분석함으로써 하회별신굿탈놀이 교수·학습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함과 동시에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7학년~9학년은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화법영역 안에서 해학과 재담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0학년은 공연예술 차원에서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화법 영역에서 교수·학습되는 하회별신굿탈놀이는 해학과 재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학습 영역에 한계가 있다. 물론 공연예술 차원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교수·학습할 때에는 장르적 특성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하회별신굿탈놀이가 내포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로서의 의의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고는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전통문화로서의 의의 차원에서 교수·학습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해학과 재담에서 벗어나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보았다. 우선, 하회별

신긱이 흥수라는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별신긱을 벌여왔던 것에서 출발하여 하회별신긱탈놀이 전반에 흐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에 주목해 보았다.

교육 방안에서는 하회별신긱탈놀이를 전통문화로서의 의의 차원에서 교수·학습할 수 있는 학습 지도안을 마련해 보았고, 반응 중심 학습 모형에 따른 교수·학습 지도안에서는 학습자들이 직접 하회별신긱탈놀이를 재현해 봄으로써 하회별신긱탈놀이가 지는 공동체 문화의 의미를 내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하회별신긱탈놀이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은 연구이다. 앞으로도 하회별신긱탈놀이 교육 방안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본고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교과서 및 교육과정 해설서

- 이충우 외, 『중학교 국어 1-1』, 『중학교 국어 1-1』, 용진씽크빅, 2009.
- 권영민 외, 『중학교 국어 1-1』, 『중학교 국어 1-2』, 새롭교육, 2009.
- 박경신 외, 『중학교 국어 1-1』, 『중학교 국어 1-2』, 대교, 2009.
- 왕문용 외, 『중학교 국어 1-1』, 『중학교 국어 1-2』, 대교, 2009.
- 우한용 외, 『중학교 국어 1-1』, 『중학교 국어 1-2』, 두산동아, 2009.
- 조동길 외, 『중학교 국어 1-1』, 『중학교 국어 1-2』, 비유와 상징, 2009.
- 김형철 외, 『중학교 국어 1-1』, 『중학교 국어 1-2』, (주)교학사, 2009.
- 남미영 외, 『중학교 국어 1-1』, 『중학교 국어 1-2』, (주)교학사, 2009.
- 윤희원 외, 『중학교 국어 1-1』, 『중학교 국어 1-2』, (주)금성출판사, 2009.
- 김종철 외, 『중학교 국어 1-1』, 『중학교 국어 1-2』, (주)도서출판 디딤  
돌, 2009.
- 이삼형 외, 『중학교 국어 1-1』, 『중학교 국어 1-2』, (주)도서출판 디딤  
돌, 2009.
- 송하춘 외, 『중학교 국어 1-1』, 『중학교 국어 1-2』, (주)박영사, 2009.
- 이 숙 외, 『중학교 국어 1-1』, 『중학교 국어 1-2』, (주)유웨이 중앙교육,  
2009.
- 이용남 외, 『중학교 국어 1-1』, 『중학교 국어 1-2』, (주)지학사, 2009.
- 방민호 외, 『중학교 국어 1-1』, 『중학교 국어 1-2』, (주)지학사, 2009.
- 이승원 외, 『중학교 국어 1-1』, 『중학교 국어 1-2』, 좋은책신사고, 2009.
- 김상욱 외, 『중학교 국어 1-1』, 『중학교 국어 1-2』, 창비, 2009.
- 박영목 외, 『중학교 국어 1-1』, 『중학교 국어 1-2』, 천재교육, 2009.
- 노미숙 외, 『중학교 국어 1-1』, 『중학교 국어 1-2』, 천재교육, 2009.

김대행 외, 『중학교 국어 1-1』, 『중학교 국어 1-2』, 천재교육, 2009.

오세영 외, 『중학교 국어 1-1』, 『중학교 국어 1-2』, 해냄에듀, 2009.

이남호 외, 『중학교 국어 1-1』, 『중학교 국어 1-2』, (주)미래엔컬처그룹, 2009.

윤여탁 외, 『중학교 국어 1-1』, 『중학교 국어 1-2』, (주)미래엔컬처그룹, 2009.

오세영 외, 『중학교 국어 2-1』 · 『중학교 국어 2-2』, (주)해냄에듀, 2010.

이남호 외, 『중학교 국어 2-1』 · 『중학교 국어 2-2』, (주)미래엔, 2010.

윤여탁 외, 『중학교 국어 2-1』 · 『중학교 국어 2-2』, (주)미래엔, 2010.

방민호 외, 『중학교 국어 2-1』 · 『중학교 국어 2-2』, (주)지학사, 2010.

이용남 외, 『중학교 국어 2-1』 · 『중학교 국어 2-2』, (주)지학사, 2010.

윤희원 외, 『중학교 국어 2-1』, (주)금성출판사, 2010.

박경신 외, 『중학교 국어 2-1』 · 『중학교 국어 2-2』, 대교, 2010.

왕문용 외, 『중학교 국어 2-1』 · 『중학교 국어 2-2』, 대교, 2010.

남미영 외, 『중학교 국어 2-1』 · 『중학교 국어 2-2』, (주)교학사, 2010.

김상욱 외, 『중학교 국어 2-1』 · 『중학교 국어 2-2』, 창비, 2010.

최미숙 외, 『중학교 국어 2-1』 · 『중학교 국어 2-2』, 천재교육, 2010.

김종철 외, 『중학교 국어 2-1』 · 『중학교 국어 2-2』, (주)도서출판 디딤돌, 2010.

권영민 외, 『중학교 국어 2-1』 · 『중학교 국어 2-2』, 권영민, 2010.

이승원 외, 『중학교 국어 2-1』, 좋은책신사고, 2010.

조동길 외, 『중학교 국어 2-2』, 비상교육, 2010.

오세영 외, 『중학교 국어 3-1』 『중학교 3-2』, 해냄에듀, 2011.

이남호 외, 『중학교 3-1』 · 『중학교 3-2』, (주)미래엔, 2011.

윤여탁 외, 『중학교 3-2』, (주)미래엔, 2011.

방민호 외, 『중학교 3-1』 · 『중학교 3-2』, (주)지학사, 2011.

조동길 외, 『중학교 3-1』 · 『중학교 3-2』, 비상교육, 2011.  
 윤희원 외, 『중학교 3-1』 · 『중학교 3-2』, (주)금성출판사, 2011.  
 박경신 외, 『중학교 3-1』 · 『중학교 3-2』, 대교, 2011.  
 왕문용 외, 『중학교 3-1』 · 『중학교 3-2』, 대교, 2011.  
 남미영 외, 『중학교 3-1』 · 『중학교 3-2』, (주)교학사, 2011.  
 김상욱 외, 『중학교 3-1』 · 『중학교 3-2』, 창비, 2011.  
 노미숙 외, 『중학교 3-1』 · 『중학교 3-2』, 천재교육, 2011.  
 김종철 외, 『중학교 3-2』, (주)도서출판 디딤돌, 2011.  
 민현식 외, 『국어 (상)』, 『국어 (상)』, 좋은책신사고, 2010.  
 한철우 외, 『국어 (상)』, 『국어 (하)』, 비상교육, 2010.  
 조남현 외, 『국어 (상)』, 『국어 (하)』, 교학사, 2010.  
 문영진 외, 『국어 (상)』, 『국어 (하)』, 창비, 2010.  
 방민호 외, 『국어 (상)』, 『국어 (하)』, (주)지학사, 2010.  
 이삼형 외, 『국어 (상)』, 『국어 (하)』, (주)도서출판 디딤돌, 2010.  
 오세영 외, 『국어 (상)』, 『국어 (하)』, 해냄에듀, 2010.  
 윤희원 외, 『국어 (상)』, 『국어 (하)』, (주)금성출판사, 2010.  
 우한용 외, 『국어 (상)』, 『국어 (하)』, 두산동아, 2010.  
 김종철 외, 『국어 (상)』, 『국어 (하)』, 천재교육, 2010.  
 김대행 외, 『국어 (상)』, 『국어 (하)』, 천재교육, 2010.  
 박영목 외, 『국어 (상)』, 『국어 (하)』, 천재교육, 2010.  
 박호영 외, 『국어 (상)』, 『국어 (하)』, (주)유웨이중앙교육, 2010.  
 박갑수 외, 『국어 (상)』, 『국어 (하)』, (주)지학사, 2010.  
 김병권 외, 『국어 (상)』, 『국어 (하)』, 더텍스트, 2010.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2007.

## 2. 단행본

-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弘盛社, 1980.
- 사진실, 『한국연극사 연구』, 태학사, 1997.
- 사진실, 『공연문화의 전통』, 태학사, 2002.
- 전경옥, 『한국 가면극 그 역사와 원리』, 열화당,
- 이두현, 『한국의 탈춤』, 일지사, 1995.
- 서대석 편, 『구비문학』, 해냄, 1997.
- 沈雨晟, 『韓國의 民俗劇』, 창작과비평사, 1984.
- 박진태, 『한국 가면극 연구』, 새문사, 1985.
- 박진태, 『탈놀이의 起源과 構造』, 새문사, 2000.
- 전경옥, 『한국가면극과 그 주변 문화』, 월인, 2007.
- 전경옥, 『韓國의 假面劇』, 열화당, 2007.
- 김재철, 『朝鮮演劇史』, 동문선, 2003.
- 민속학술자료총서, 『가면극 11』, 도서출판 우리마당터, 2003.
- 민속학술자료총서, 『탈춤 08』, 도서출판 우리마당터, 2003.
- 민속학술자료총서, 『탈춤 10』, 도서출판 우리마당터, 2003.
-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제 6판, 三英社, 2012.
- 박인기 외, 『문학을 통한 교육』, 삼지원, 2005.
- 최미숙 외,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2008.

## 3. 학위논문

- 김영찬, 「고등학교 민속극 교육의 실태와 지도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권용무, 「<봉산탈춤의 교육방법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지혜, 「초등국어교육에서의 탈놀이 교재화 방안 연구-하회별신굿탈놀이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배동희, 「초등학생을 위한 하회별신굿탈놀이 지도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조정현, 「별신굿의 전승력과 축제적 연행의 원형」, 안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4. 학회지 논문

조정현, 「하회탈춤 전통의 재창조와 안동문화의 이미지 변화」, 비교민속학, Vol. 29 No., 비교민속학회, 2005.

조정현, 「마을공동체신앙과 생태민속-하회별신굿의 생태민속학적 해석」, 비교민속학, Vol. 41 No., 비교민속학회, 2010.

조정현·김원구, 「안동지역 별신굿의 제의성과 축제성」, 비교민속학, Vol. 35 No., 비교민속학회, 2008.

윤천근,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종교성과 민중성」, 하회탈과 하회탈춤의 美學, Vol.8 No.1, 사계절, 1999.

임재해, 「한국 축제 전통의 지속 양상과 축제성의 재인식」, 비교민속학, Vol. 42 No.-, 비교민속학회, 2010.

임재해, 「하회탈놀이의 제의성과 예술성, 그리고 민중적 창조력」, 안동학연구 Vol. 2. No.,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2003.

임재해, 「탈춤 기원론의 쟁점과 상고시대 탈춤문화의 뿌리」, 韓國民俗學, Vol. 50 No. 1, 한국민속학회, 2009.

임재해, 「한국 탈춤의 전통과 아름다움 재인식」, 비교민속학, Vol. 37 No.-, 비교민속학회, 2008.

임재해, 「구비문학의 축제성과 축제에서 구비문학의 기능」, 口碑文學研究, Vol. 24 No.-, 한국구비문학학회, 2007.

- 박진태, 「河回別神굿 탈놀이」, 비교민속학, Vol. 6 No.-, 비교민속학회, 1990.
- 성병희, 「河回 별신 탈놀이」, 韓國民俗學, Vol. 12 No.1,, 한국민속학회, 1980.
- 백현순, 「제의적 마을 탈춤의 분석 -제의적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 10 No. 4, 한국콘텐츠학회, 2010.
- 손태도, 「하회 서낭신의 정체와 하회탈놀이의 공연예술사적 의의」, 실천민속학연구, Vol.16 No.-, 실천민속학회, 2010.
- 강진우, 「하회탈춤의 신명 구현 원리」, 국어교육연구, Vol.46 No.-, 국어교육학회, 2010.
- 이혜영, 「하회탈놀이의 철학적 의미」, 하회탈과 하회탈춤의 美學, Vol.8 No.1, 사계절, 1999.
- 元明洙, 「하회별신굿 탈놀이의 ‘희극성’ 연구」, 語文學, Vol. 62 No.-, 韓國語文學會, 1998.
- 전경욱, 「전통연희의 현대적 의의」, 한국어문교육, Vol.9 No.-,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1.
- 黃松文, 「한국인의 표정-탈춤의 諧謔」, Vol.- No.193, 북한연구소, 1988.
- 강태근, 「해학의 개념 연구」, 새국어교육, Vol.41 No.1, 한국국어교육학회, 1985.
- 전병선, 「익살 해학 야유 풍자」, 중국조선어문, Vol.- No.1986-3,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1986.

## 5. 홈페이지 자료 출처

www.hahoemask.co.kr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www.hahoe.or.kr 안동하회마을

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www.kice.ce.kr/교수학습개발센터

## 6. 사진 및 그림 이미지 출처

www.hahoemask.co.kr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www.hahoe.or.kr](http://www.hahoe.or.kr) 안동하회마을

[www.naver.com](http://www.naver.com) 이미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 ABSTRACT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of Hahoe Mask Dance Drama  
-Focusing on the 2007 Revised Korean Language Education Curriculum  
for 9th Grade-

Yu, Jung-Hyu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is a study on teaching methods of Hahoe Mask Dance Drama aimed at students in the 9th grade.

According to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the 9th grade students, which were published in compliance with the 2007 Revised Education Curriculum, the Mask Play was arranged in a speaking section and the students were required to study and focus on its humor.

After conducting research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from the 7th grade to the 10th grade, which went through the 2007 Curriculum, the result showed that folk plays were hardly addressed, whereas kinds of the textbooks were increased and diversified.

It also indicated that education on folk plays was standardized; students studied Hahoe Mask Dance Drama in middle schools and Bongsan Mask Play in the 10th grade of high schools.

To increase interest on our Korean folk plays, a variety of mask dramas should be included on the textbooks.

It is necessary that literary and dramatic parts should be learned simultaneously for desirable education in folk plays.

From the originality of Hahoe Mask Play,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lifestyles of our ancestors can be found. Community spirit was also found important through the mask drama. These features deserve literary materials for education.

This study suggests ways to use Hahoe Mask Play as educational materials through literature and how students can learn more about community spirit, one of the traditional Korean cultures.

Based on the above things, Hahoe Mask Dance Drama was presented to educate students as a model of the direct instructional method, and the way students can internalize the play with education dramas was also proposed.

<부록1> 학생 배부용 유인물

-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왜! 했을까?

‘( ㉠ )’이란 특별한 날에 행하는 특별한 굿 혹은 큰굿을 의미한다. 옛날에는 각 마을마다 모시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 ㉡ )이라고 부른다.

( ㉢ )은 그 마을의 풍요를 가져다주고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호신이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살았던 조상들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 ㉣ )에게 굿을 함으로써 소원을 빌었다. 하회마을 사람들이 하회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위해 벌였던 굿을 ‘( ㉤ )’이라 한다.

<보기> 별신굿, 서낭신

- 하회별신굿탈놀이 의의

탈놀이는 하회마을 사람들이 탈을 쓰고 놀이를 펼치는 것이다. 신에게 부락을 하기 위해서는 신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 ㉦ )를 했고, 이 탈놀이를 통해 ( ㉧ )을 기쁘게 해드리기도 했으며 마을 주민들도 함께 즐겼던 것이다. 탈놀이의 등장인물들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되었고, 탈놀이에 연주되는 ( ㉨ )도 마을 주민들이 담당했다. 하회별신굿탈놀이에는 마을 주민들의 간의 화합이 이루어낸 ( ㉩ )의식이 담겨 있다.

<보기> 탈놀이, 서낭신, 풍물, 공동체

- 하회별신굿탈놀이에 ‘양반 선비 마당’에 등장하는 탈이다. 탈 이름을 적어 보자.

--	--	--



양반      학식이 있어야지, 학식이. 나는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다 읽었다네  
선비      뭐 그까짓 사서삼경 가지고. 어흠, 나는 팔서육경(八書六經)을 다 읽었네  
양반      아니, 뭐? 팔서육경? 도대체 팔서는 어디에 있으며, 그래, 대관절 육경은 또 뭐  
            가?  
초랭이    헤헤헤, 나도 아는 육경, 그것도 모릅니까? 팔만대장경, 중의 바라경, 봉사의 안  
            경, 약국의 길경, 여자의 월경, 머슴의 새경 말입니다.  
선비      그래, 이것도 아는 육경을 양반이라 하는 자네가 모른단 말인가?

- 하회별신굿탈놀이 과장을 알아보자.

	<p>무녀 : (강신 주문) 동방에 지국천왕님하  남방에 광목천왕님하 남무사방에 진자천  자 천왕님하 북방산에 마미사문 천왕님하</p>
--	---



내외에 향사목 천왕님하, 무진생 성황님하  
다러 디리 데리 디로 로마하 하도람 다리  
러 다로링 다리러. 정월이월 드는 액운 삼  
월삼진(삼짓날) 막아내고 사오월 드는 액  
운 유월유두(流頭) 막아내고 칠월팔일 드  
는 액운 구월구일 막아내고 시월동지(冬  
至) 드는 액운 납월납일 막아내고 매월매  
일 드는 액운 초랭이 장구로 막아내세.  
초랭이 : (장구를 떼고 나온다.)

제 1과장 ( )  
별신굿을 시작하기 전 신내림을 하기 위해  
제사를 올린다.

제 11과장 ( )  
별신 행사의 최종일 음력 정월 15일  
마을 앞길에서 제물을 차려 놓고 모  
든 귀신들이 하회 동네에 침범하지  
못하게 굿을 올린다.



제 5과장 ( )  
양반과 선비가 서로 자신의 위치가 높다고  
자랑한다.

제 12과장 ( )  
신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별신굿이 끝나게 된다.

<보기> 강신, 양반 선비 세도 자랑, 당제, 헛천굿(거리굿)

<부록2> 하회별신굿탈놀이 수업 PPT 자료





## 풍물놀이





평과리



장구









하회별신굿탈놀이 과장을 알아봅시다.



## 제 1과장 강신(降神) 신내림

무녀 :

안동 성황님하, 팔도강산 성황님하, 오방지신 성황님하, 하회동 무진생 성황님하, 다로 다리 다리러 다로리 다로리 로마하 하도람 하도람 하도람 다리러 로마하 다리령 디러리 디러리. 무진생 정월에 별신굿을 드리오니 나리소서 내려주소 슬스리 나리소서. 성황대에 나리소서.

성황당에 오색포(五色布)를 늘인 성황대가 서 있고 성줏대가 세워져 있다. 산주와 광대들이 별신 행사를 하도록 강신(降神)하여 달라고 기도한다.

성황당 : 처녀당이라고도 부른다. 김씨 여자가 15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이곳 서낭신이 되었다고 한다.  
성황대 : 성황신을 깃들이는 장대.  
성जू대 : 하회 별신굿 탈놀이를 하기 전에, 당산에 세워 신이 내리기를 비는 막대.  
산주 : 별신 행사의 주제자.  
별신 : 큰굿 혹은 특별한 굿을 일컫는다.



하회별신굿탈놀이 과장을 알아봅시다.



## 제 11과장 헛천굿(거리굿) -홍수로 인해 헛천이 생기면 하회마을은 고립되는데 헛천굿(거리굿)은 홍수로 인해 헛천이 생기지 않도록 비는 것이다. (신의 힘으로 자연재해를 막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

무녀 : (강신 주문) 동방에 지국천왕님하 남방에 광목천왕님하 남무사방에 전자천자 천왕님하 북방산에 마미사문 천왕님하 내외에 향사목 천왕님하, 무진생 성황님하 다리 디리 데러 디로 로마하 하도람 다리러 다로령 다리러. 정월이월 드는 액운 삼월삼진(삼짓날) 막아내고 사오월 드는 액운 유월유두(流頭) 막아내고 칠월팔일 드는 액운 구월구일 막아내고 시월동지(冬至) 드는 액운 남월남일 막아내고 매월매일 드는 액운 초랭이 장구로 막아내세. 초랭이 : (장구를 메고 나온다.)

(광대들은 초랭이 장구에 맞추어 한 사람씩 나와 춤을 추다가 삼신당 고목나무에 탈을 벗어 걸어 놓고 나간다. 주지탈과 신장대마저 봉납한 뒤에 산주(山主)의 지시를 기다린다.)

액운 : 모질고 사나운 운수  
삼짓날 : 음력 삼월 초사흘날(매달 초하룻날부터 헤아려 셋째 되는 날)  
남월남일 : 음력 설날. 민간이나 조정에서 조상이나 종묘 또는 사직에 제사 지내던 날  
신장대 : 무당이 신장을 내릴 때에 쓰는 막대기나 나뭇가지



하회별신굿탈놀이 과장을 알아봅시다.

## 제 12과장 당제(堂祭)

신을 본디 자리로 보내는 송신(送神) 과정  
15일간의 별신굿이 끝나게 된다.



별신놀이 최종일 야삼경에 성황당에 올라가서 성황대를 봉납하고 일년간의 동네 무사  
식재(無事息災)를 기도하고 다음에 국신당 삼신당에 차례로 제(祭)를 올리면 별신 행사  
가 종료되므로 광대들은 꽃병거지를 벗어 삼신당에 걸어 두고 약 15일 간이나 가볼 수  
없었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야삼경 : 밤 열한 시에서 새벽 한 시 사이

봉납 : 물품 따위를 바침

성황대 :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하기 전에, 서낭당에 세워 신이 내리기를 비는 막대

무사식재(無事息災) : 아무 탈 없이 편안함. 부처 또는 보살의 힘으로 온갖 고난과 재해를 소멸시킴

삼신당 : 하회 별신굿 놀이에서, 마을에 이르기 전에 거쳐 가는 곳의 하나



##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 선비 마당

구경하기 





## 이것만큼 꼭 알고 넘어가자!



- 하회별신굿탈놀이에 '양반 선비 마당'에 등장하는 탈이다.  
탈 이름을 적어 보자.



탈이름 : 양반탈



탈이름 : 선비탈



탈이름 : 초랭이탈

양반 : 학식이 있어야지, 학식이. 나는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다 읽었다네  
선비 : 뭐 그까짓 사서삼경 가지고. 어휴, 나는 팔서육경(八書六經)을 다 읽었네  
양반 : 아니, 뭐? 팔서육경? 도대체 팔서는 어디에 있으며, 그래, 대관절 육경은 또 뭐가?  
초랭이 : 헤헤헤, 나도 아는 육경, 그것도 모릅니까? 팔만대장경, 중의 바라경, 봉사의 안경, 약국의 길경, 여자의 월경, 머슴의 새경 말입니다.  
선비 : 그래, 이것도 아는 육경을 양반이라 하는 자네가 모른단 말인가?



## 이것만큼 꼭 알고 넘어가자!



- 하회별신굿은 왜! 했을까?

'( 별신굿 )'이란 특별한 날에 행하는 특별한 굿 혹은 큰굿을 의미한다. 옛날에는 각 마을마다 모시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 서낭신 )이라고 부른다. ( 서낭신 )은 그 마을의 풍요를 가져다주고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호신이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살았던 우리 선인들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 서낭신 )에게 굿을 함으로써 소원을 빌었다. 하회마을 사람들이 하회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위해 벌였던 굿을 '( 하회별신굿 )'이라고 한다.

<보기> 서낭신, 하회별신굿



## 이것만큼 꼭 알고 넘어가자!

### - 하회별신굿탈놀이 의의

탈놀이는 하회마을 사람들이 탈을 쓰고 놀이를 펼치는 것이다. 신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는 신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탈놀이)를 했고, 이 탈놀이를 통해 (서낭신)을 기쁘게 해드리기도 했으며 마을 주민들도 함께 즐겼던 것이다. 탈놀이의 등장인물들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되었고, 탈놀이에 연주되는 (풍물)도 마을 주민들이 담당했다. 하회별신굿탈놀이에는 마을 주민들의 간의 화합이 이루어낸 (공동체) 의식이 담겨 있다.

<보기> 탈놀이, 서낭신, 풍물, 공동체